

경북의사회가_만들어가는_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09 Autumn Vol.35

Photo News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09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공지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정치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제29기 공제회 가입안내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 등반대회
2009. 9. 27(일) 경북 영천 팔공산(치산관광단지)



경상북도의사회
Gyeongbuk Medical Association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칠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칠프레드니솔론(U,S,P) ······ 4mg

효능 · 효과

1. 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2. 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3. 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4. 내분비 장애 5. 류마티스성 장애
6. 안과 질환 7. 위장관계 질환 8. 호흡기계 질환
9. 혈액 질환 10. 악성 종양성 질환 11. 부종성 질환 12. 신경계 질환 13. 기타

보 험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륭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Contents

2009년 가을호 (제 35호) **경북의사회보**



6_



9_



10_

발행인 이석균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09년 10월 26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 김재왕 · 김종영 · 문기혁 · 김종규 · 오춘석
 7002-821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053)941-7785 FAX.(053)941-5557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_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600-5
 TEL.(053)555-3336 FAX.(053)556-3273

4 특별기고

단합되고 발전하는 경상북도의사회가 되시길 · 박희두
 신뢰와 사랑 받는 의료계 되도록 앞장서 주시길 · 이상천

6 포토뉴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09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경북 · 전북의사회 친선행사

12 회무소식

23 공지사항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정치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제29기 공제회 가입안내

29 분회 및 병원소식

37 지역의사회 탐방

포항시의사회 / 성주군의사회

43 의학 및 건강칼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 이영현

46 회원 문예

시가 있는 풍경_ 신경림의 '갈대', 유안진의 '갈대꽃' · 신명준
 수필_ 어머니 6주기에 부쳐 · 이승기
 클라이머 그레이(Climber gray) · 서역수
 지리산 천왕봉 · 서보균
 Mania를 찾아서_ 스쿠바다이빙 · 김석곤
 마이웨이 · 장태영
 행사후기_ 잊었지만 잊지는 않았던...! · 이종규

64 생활정보

KTX시간표

분회 주요 연중행사 일정

2009. 4. 1	이석균 신임 회장 취임	2009. 10. 11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2009. 4. 7	제37회 보건의날	2009. 10. 17~18	경·전북 자매결연 친선행사
2009. 4. 26	제61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09. 10. 26	제35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09. 5. 23~24	제31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학술대회, 친선의 밤, 의학제)	2009. 11. 1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009. 5. 24	대한의사산악회 등반대회	2010. 1.	경인년 신년인사회
2009. 7. 4	분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2010. 1.	제36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09. 7. 27	제34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0. 3.	2009년도 전체이사회
2009. 9. 27	회원 및 가족 친선 등반대회	2010. 3.	2009년도 회무감사
		2010. 3.	제59차 정기대의원총회

단합되고 발전하는 경상북도의사회가 되시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박희두**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상북도는 저의 고향이요, 어린 시절 성장을 이루게 한 곳이며 또 이 나라를 역사의 시작부터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지역으로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남다른 지역입니다. 지금 부모님은 살아계시지 않지만 바쁜생활속에서도 시간이 허락되면 고향 김천시 봉산면 선산의 부모님 묘소를 찾아 갑니다. 고향에는 아직도 부모님께서 사시던 집과 논과 밭이 그대로 있으며 이곳에서 부모님의 향취를 느끼고 감사하며 또 새로운 힘을 얻어 돌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으로 내려와 의업에 종사하며 살아온 지도 어느덧 40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개원 후 부산시의사회 남구 대연1반 반장을 오랫동안 맡으며 의사회에 봉사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인지 남구의 사회장, 시의사회 부회장, 그리고 부산시의사회장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일을 맡아 의료의 발전과 십만명 회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의협회관 7층 사석홀에서 2차 대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정만진 경북 의장님을 포함한 전국 의사회에서 모이신 의장님들과 집행부 임원과 함께 의료현안에 대하여 많은 얘기들을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원격진료를 도입하겠다고 많은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의 주체가 되는 우리 의사들의 입지가 앞으로 더 좁아지지 않는 지 염려되는 현안이 대두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회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고 의사회의 일들을 밀어 주시고 함께 단합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우리 의사들 개개인은 훌륭하시고 능력있고 귀한 분들이시지만 단체로 모이게 되면 그 힘의 결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사회원 여러분들께서 사회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많은 부분의 일들을 맡아 봉사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의사회에 관심과 참여를 해 주시고 의사회의 일들을 밀어 주시고 함께 단합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사회에서 회원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열성적으로 우리 회원들을 위하여 지혜를 모으고 현안에 대처하며 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시도의사회장님을 중심으로 임원과 회

원들이 단합되어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를 제공하며 숭고한 의료인의 봉사정신으로 존경받는 의료계가 되어야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가운데 대의원들을 통하여 개선해야 할 점이나 제도상의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 검토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의 의료정책들은 반드시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단합되고 힘있는 그리고 발전하는 경상북도의사회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가정 위에 늘 행운과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와 사랑 받는 의료계 되도록 앞장서 주시길...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 상 천

황금물결이 출렁이는 가을들녘마다 풍요로움이 넘치는 때에 300만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경상북도소사회의 소식지 '제35호 경북의사회보'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1943년 10월 창립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상북도소사회 이석균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과 친절한 자세로 고객(환자)들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료계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잘 아시다시피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로서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국민건강과 체위증진을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국민 평균수명을 80세 이상으로 연장시키는 주역으로서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특히, 수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는 바쁘신 중에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해재난 현장에서

와 불우시설에 대한 의료봉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 사회, 건강한 경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의사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신종플루의 예방활동과 전문치료에 힘써 주시고, 지역민과 함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어나가는 전문가 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모형을 정립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명감과 친절한 자세로 고객(환자)들에게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의료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료계가 되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을회보를 통해 우리 도민들에게 올바르고 유익한 건강상식, 의학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곡백과가 알알이 영그는 결실의 계절에 회원여러분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9월 27일(일) 오전 10시 / 영천 팔공산(치산계곡) 일원

- 1 진불암에서
- 2 이석균 회장 개회사, 정민진 의장 인사
- 3 포항시 의사회원
- 4 5 경주시 의사회원
- 6 등반 후 뒷풀이 행사(이월기 고문의 건배 제외)



2







1

2009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10월 11일(일) 오후 1시 / 경북대 의전원 테니스장

- 1 이석균 회장의 개회사
- 2 허준호(포항) 회원의 선수선서
- 3 준우승에 이태우(포항), 김성완(구미) 선수
- 4 우승에 김대연(영천), 김태진(문경) 선수



2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10월 17일(토) ~ 18일(일) / 전북 전주 한옥마을

- 1 방인석 전북회장의 환영사
- 2 이석균 본회 회장의 답사
- 3 4 경만호 의협회장·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축사





- 5 부안 내소사 관광
- 6 신은식 본회 고문의 건배 제의
- 7 양도의사회 기념품 전달
- 8 내년을 기약하며 환송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영천 팔공산서 개최

지난 9월 27일 영천 팔공산(치산계곡) 일원에서 도내 각지에서 모인 회원 및 가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경북 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서보균 정책이사의 등반코스 설명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경상북도의사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가 지난 9월 27일(일) 오전 10시 영천 팔공산(치산계곡)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정만진 대의원회 의장, 신은식·이원기·변영우 고문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한형원 기획이사의 진행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어 이석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바쁘신 일과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등반을 통해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하였으며, 또한 정만진 의장은 '등반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자' 라고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어 서보균 정책이사로부터 등반코스는 치산관광단지 주차장을 출발하여 영천 수도사, 치산폭포를 왕복으로 하는 1시간 A코스와 수도사에서 진불암을 왕복으로 하는 2시간 30분 B코스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있는 후 참석한 회원 및 가족들 모두 기념사진 촬영을 마치고 팔공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등반을 시작하였다.

팔공산 치산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수도사를 거쳐 공산폭포, 진불암을 돌아오는 코스로 등반을 마친 후 치산관광단지내에 마련된 뒤풀이 행사에서는 참석 내빈 소개와 더불어 신은식·이원기·변영우 고문의 건배제의로 등반의 피로를 풀었다.

이날 등반대회는 포항과 경주, 경산에서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는 한편, 도내 각지에서 회원들이 모여 상호간 친목을 다지며 건강을 챙기는 등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를 성황리에 마쳤으며, 또한 참석한 회원에게는 호두과자를 선물로 증정하였다.



2009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성황리 개최

2009년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11일(일) 오후 1시부터 경북의전원 테니스장에서 본회 이석균 회장과 정만진 의장을 비롯한 선수 10명이 참가하여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으며, 리그전으로 펼쳐진 경기에서 김대연(영천)·김태진(문경) 선수조가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청명한 가을날에 열린 2009년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는 박일영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 허준호(포항) 회원의 선수선서를 시작으로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고,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어 정만진 의장은 “테니스 경기를 통해 건강증진을 도모할수 있는 계기가 되자”라는 인사말을 대신하였다.

이날 개최된 테니스대회는 조추첨을 통해 김대연(영천)·김태진(문경), 김지홍·허준호(포항), 김성연(문경)·최진교(포항), 이태우(포항)·김성완(구미), 전민·김성환(포항)팀이 단체 풀리그전으로 열린 경기를 펼친 결과 우승(사진 좌)에는 김대연(영천)·김태진(문경)조가, 준우승(사진 우)에는 이태우(포항)·김성완(구미)조가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아울러, 2010년 테니스대회는 매년 5월 개최되는 경상북도 의사의 날과 병행하여 개최키로 하고 2009년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0월 11일 오후 1시부터 경북의전원 테니스장에서 '2009년도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김대연(영천)·김태진(문경) 선수조가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제24회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서 화합과 우의 다져

지난 10월 17일부터 2일간 전북 전주 한옥마을(코아리베라호텔)에서 양도의사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는 지난 10월 17일(토)부터 10월 18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전주 한옥마을(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제24회 경북·전북의사회 자매결연 친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하여 정만진 의장, 신은식·최종두·이원기·변영우 고문,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등 36명이, 전라북도의사회서는 방인석 회장과 김병주·장명규·천희두·김명용·차관준 명예회장 등 55명과 의협 경만호 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양도의사회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방인석 전북의사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길을 한걸음에 달려오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4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더욱 돈독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였으며, 이어 본회 이석균 회장은 “전북과 경북지역 의료인들 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 친선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지역적 한계를 탈피하여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라고 답사를 하였다.

이어 경만호 회장과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축사가 이어진 후 만찬과 더불어 친선행사 시간에는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친선행사에는 사물놀이로 흥을 돋우는 한편, 전북의사회 배철 부의장의 태극권 시범과 색소폰 4중주로 화려한 가을밤의 운치를 느낄 수 있었다.

이튿날에는 전북 부안에 위치하고 백제 무왕 34년(633년) 승려 혜구두타(惠丘頭陀)가 창건한 내소사 경내 관람과 전라북도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된 적벽강을 문화해설사의 설명으로 둘러보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33km의 방조제인 새만금을 통과하는 코스로 관광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선골프대회는 군산CC에서 개최되는 등 알찬 행사로 꾸며졌다.

금년도 친선행사는 전라북도의사회의 초청으로 의료계의 단합과 회원 상호간의 화합의 장을 열었으며, 기념품 전달과 환송사를 끝으로 2009년도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본회와 전라북도의사회가 맺고 있는 친선행사는 24년전 88고속도로의 개통을 기회로 당시 오삼달 경북의사회장과 김병주 전북의사회장과의 격의없는 대화로 자매결연을 맺어 현재까지 양 지역을 번갈아 방문하며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시군의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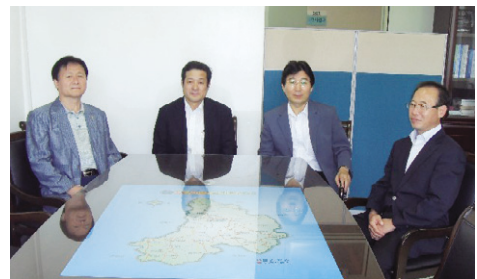
본회 이석균 회장은 지난 4월 1일 회무를 시작하면서 회원들의 단합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취임사에서는 회원들에게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달려가 일선에서 진료에 임하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전 지역을 순회하고 협조를 구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수) 취임인사차 영덕군의사회와 영덕아산병원, 울진군의사회, 울진군의료원 등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첫 행보를 시작하였으며, 일선에서 진료하고 있는 각 지역 회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회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후 5월 6일(수)에는 안동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인 안동병원과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을 각각 방문하여 취임 인사와 더불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26일(금) 포항지역 종합병원인 선린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을 각각 방문하였으며, 8월 14일(금)에는 북부지역인 청송·영양·봉화·영주 지역을 방문, 9월 11일(금)에는 경주, 영천시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9월 22일(화)에는 군위, 의성, 예천, 문경, 상주를, 9월 24일(목)에는 고령, 성주, 칠곡, 김천, 구미지역 의사회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였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지난 4월 15일부터 경북도내 지역 의사회를 비롯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취임 인사와 더불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 일정 및 기관

월 일	시군별	방문기관	월 일	시군별	방문기관	월 일	시군별	방문기관		
4/15(수)	울진군	울진군의사회 울진군의료원	8/14(금)	영주시	영주시의사회 성누기병원 영주기독병원 영주가톨릭병원	9/22(화)	상주시	상주시의사회 상주적십자병원 상주성모병원		
	영덕군	영덕군의사회 영덕아산병원			9/23(수)	경산시	경상병원 세명병원			
5/ 6(수)	안동시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9/11(금)	경주시	경주시의사회 동국대경주병원 경주동산병원		고령군	고령군의사회 고령영생병원
6/14(일)		안동시의사회						성주군	성주군의사회	
6/26(금)	포항시	포항시의사회 선린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의료원 고려병원		영천시	영천시의사회 영대영천병원	칠곡군	칠곡군의사회 혜원성모병원			
		9/22(화)	군위군	군위군의사회 의성군의사회 가톨릭연합정형외과 동산연합의원	9/24(목)	김천시	김천시의사회 김천의료원			
			의성군	의성군의사회 가톨릭연합정형외과 동산연합의원			구미시	구미시의사회 구미차병원 순천향대구미병원 구미강동병원		
			예천군	예천군의사회 예천권병원				10/22(목)	청도군	청도군의사회 청도대남병원
8/14(금)	청송군	청송군보건의료원		문경시	문경시의사회 문경제일병원					
	영양군	영양병원								
	봉화군	봉화군의사회 봉화해성병원								

본회 윤리위원회 구성 및 위촉장 수여

본회에서는 지난 7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의협 정관 제57조 제1항 및 본회 회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경상북도의사회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장 수여 및 상견례를 겸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윤리위원회에서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참석해주신 윤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사로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조율과 타협으로 이끌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변영우 위원장은 “본회 윤리위원회 규정을 바탕으로 의료윤리에 반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 인식개고를 위해 노력하자”라고 하였다.

이어 윤리위원 간담회에서는 그간 본회에서 다루어 진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경과설명과 의사의 자율 지도권 확보와 의사윤리 위배행위에 대한 징계보다는 모범이 되는 회원을 발굴, 포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2003년도 제정된 윤리위원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키로 하였다.



본회 윤리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에 변영우 전 회장, 부위원장에 안길룡 회원, 위원으로 오세진·권세홍·장의현·김대환·유성호·장기호 회원들, 간사에는 최경태 법제이사를 위촉하였다.

본회 윤리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의료기관명	지 역
위원장	변 영 우	선린의원	경주
부위원장	안 길 룡	안외과의원	김천
위 원	오 세 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포항
	권 세 홍	안동병원 영상의학과	안동
	장 의 현	지앤미피부비뇨기과의원	구미
	김 대 환	베드로내과의원	영천
	유 성 호	평화산부인과의원	문경
감 사	장 기 호	사랑애의원	경산
	최 경 태	현대외과의원	경산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 위촉

보건의료와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제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009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이수환 법률고문은 1958년생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포항시의사회와 건축사회 고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정연경 법률고문은 1953년생으로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권기준 법률고문은 1691년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영주시 고문변호사와 영주시 민자유치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으며, 성상희 법률고문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구미시법원 민사조정위원과 독일보쿰대학 법과대학 평화보장법과 인도적국

제법연구소 방문연구원을 맡고 있다.

조제일 세무고문은 195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였으며, 서대구세무서,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등에서 다년간 근무후 조제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대구지방법무사회 고문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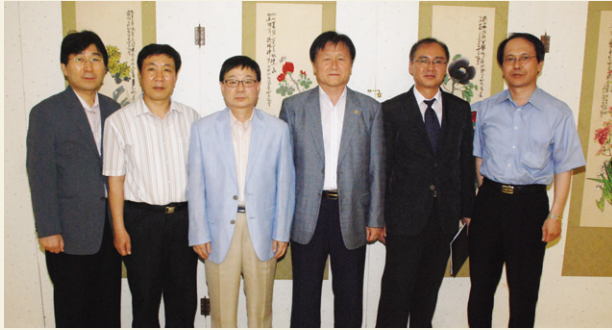
본회 법률 및 세무고문



이수환 고문 정연경 고문 권기준 고문 성상희 고문 조제일 고문

직 위	성 명	근무처명	전 화	지 역
법률고문	이 수 환	이수환법률사무소	(054) 249-0071	포항
	정 연 경	정연경법률사무소	(054) 742-9222	경주
	권 기 준	권기준법률사무소	(054) 856-7373	안동
세무고문	성 상 희	법무법인 대구하나로	(054) 457-2626	구미
	조 제 일	조제일세무회계사무소	(053) 743-8466	대구

본회 의약품정책위원회 구성 및 간담회 개최



본회에서는 의약품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지난 7월 28일(화) 오후 7시 30분 경주에서 의약품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본회 이정기 의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이석균 회장으로 부터 새로이 구성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이석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약품정책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을 위한 의약품 정책개발에 열심히 노력해 달라”라고 하였다.

이어 백승인 위원장은 “중요한 책무를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그간 의사회 활동으로 의약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현장 경험을 살려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여 정부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을 저지하고 고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의약품 소포장 문제와 생동성시험, 성분명 처방 등 최근 의료현안과 불법대체조제를 근절방안 등에 대해 중점논의 하였다.

의약품정책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의료기관명	지역
위원장	백 승 인	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	경주
위 원	김 장 희	김정희산부인과의원	경주
	이 봉 구	이피부과의원	경주
	이 정 기	삼성연합여성의원	경산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 출범

지난 7월 22일(수) 오후 3시 경산시민회관에서 전채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상천 도의회 의장, 최병국 경산시장, 이석균 본회 회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지고 심각한 사회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계는 본회를 비롯한 약사회, 간호사회와 종교계, 경제·언론·대학·여성계 등 38개 단체가 손을 잡았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의 출범을 계기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재인식되고 가치관이 변화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며 “경북도 역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 경북운동본부 출범을 통해 전시적인 캠페인성 행사보다는 여성들이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을 실질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며, 참여기관 및 단체들은 행동선언을 통해 의료계는 산모 및 태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율을 높이는데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산모가 분만의 기쁨을 가족과 함께 맞이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모유수유를 적극 권장하고, 우리 아이들이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진료와 투약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임산부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 전개 △육아에 아버지 동참을 확산시키는 ‘아버지 교실’ 운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맞벌이·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미래의 결혼 및 출산 결정자인 대학생들의 출산 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경상북도와 경북대 등 지역 6개



대학들과 함께 '대학생 결혼·출산 인식개선을 위한 양해각서(MOU)' 도 체결하고 결혼·출산 홍보교육 행사를 공동 개최키로 하였으며, 앞으로 도내 전체 대학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복 유치 기자 간담회 참석

정부는 지난 8월 10일(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각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기로 확정하는데 대해 대구·경북은 부지 확보와 의료 인프라의 우수성 등을 내세워 단독 유치를 원했던 만큼 아



쉬워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된 두 지역에 2038년까지 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 등 모두 5조6천억원이 투입돼 글로벌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종합연구공간이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으며, 첨복단지 사업(2013~2037년)의 기대효과는 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조2천억원 등 생산증가 82조2천억원, 고용창출 38만2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발표 직후 대구시청 대강당에서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 대구보건의료협회의 회 인주철 회장, 조영래 경북대병원장, 이석균 본회 회장,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를 갖고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역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민간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는 한편, "대구 의료 인프라의 장점을 살리고 경북의 R&D 자원을 조화시켜 대구·경북이 세계적 의료단지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복단지 성공 조성 결의대회서 결의문 채택 및 낭독

지난 8월 17일(월) 오후 7시 호텔인터볼고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 기원 결의대회'를 열고 유치과정에서 결집된 대구경북의 에너지를 첨단의료복합단지 성공조성을 위한 결의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정치계, 학계 등 첨복 유치에 힘을 보탠 각계각층 인사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선진국 수준의 첨복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시도민 대표 7명은 첨복 성공 염원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낭독하였으며, 결의문에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



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지역의 산학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협력하며, 첨복단지의 연구개발 성과를 타 지역과 공유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연구협력망을 구축하고 발전시켜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 초일류 의료단지로 조성하자고 결의하였다.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의료지원팀 격려

2009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가 ‘친환경농업, 자연과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란 주제로 지난 7월 24일(금) 오후 3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관용 도지사,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이종규 울진군의회장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왕피천엑스포공원 주공연장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세계7대 녹색강국 진입을 위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등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는 한편, 김용수 울진군수는 농민대표와 기관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엑스포 개장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친환경농업이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2·3·4차 산업으로 연계된 고부가가치 상품개발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울진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회 이석균 회장은 울진군의회에서 엑스포 행사장 내 마련한 의료지원팀(의사회·보건소·의료원)을 방문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회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이종규 울진군의회장은 의료진의 사기진작과 격려를 위해 멀리서 개막행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의료봉사팀 격려 및 시군의회 방문

본회 이석균 회장은 지난 8월 14일(금) 청송·영양·봉화·영주시의사회 방문과 더불어 청송지역에서 무료진료 중인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 의료봉사단을 방문하여 격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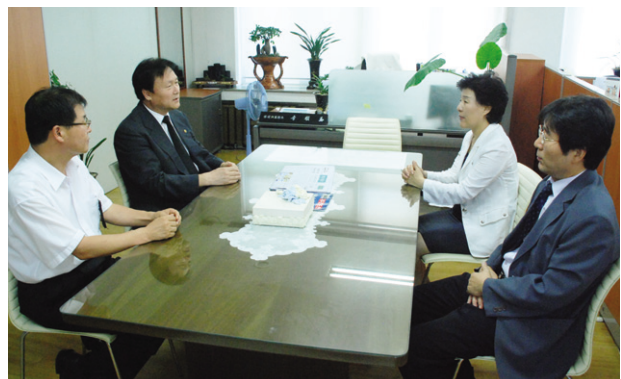
시군의회 및 관내병원 방문은 지난 4월 본회 이석균 회장 취임 이후 울진·영덕군의사회와 포항시의사회 등 동부지역에 이어 이번 세 번째로 북부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다.

특히 이날 청송지역 방문은 서울남산라이온스클럽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8월 11일(화)부터 15일(토)까지 청송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개안수술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진(의사 14명)을 격려하고 위문품으로 과일 5상자를 전달했다.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방문

본회 이석균 회장은 8월 21일(금) 오후 1시 30분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이순옥 과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음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경상북도와 보건의료단체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경환국회의원과 의료현안 중점논의

지난 8월 22일(토) 오후 7시30분 한나라당 경산·청도 국회의원인 최경환 의원의 사무실에서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최경환 국회의원으로부터 첨단의료복합 단지의 대구경북지역 유치과정에 대한 상세한 경과 설명이 있었으며, 이석균 회장은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준 최경환 국회의원에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또한, 의협의 21개 규제개혁 완화(안)에 설명과 지역보건소의 역할문제, 그리고 지역 의과대학의 수도권학생 편중으로 인한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아울러 의료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본회에서는 이석균 회장과 최경태 법제이사, 박종완 보험이사, 이정기 의무이사, 김종영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신종플루 관련 긴급영상회의 개최

최근 신종플루 환자의 감염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연이어 사망환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플루에 대한 주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금) 오후 5시 경상북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와 각시군 보건복지 관계자 및 유관단체(의사회·약사회)와의 관계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이석균 회장과 경북 김장주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이순옥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시군에서는 의사회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하여 신종인플루엔자의 그간 추진사항을 비롯한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과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기관단체별 대응방안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신종플루 관련 의협 비상대책회의

의협은 지난 8월 29일 오후 5시 동아홀에서 '시도 및 시군구 회장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협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방진용 마스크' 등 현 정부의 지원계획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의료인 스스로 감염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수술용 마스크 착용 및 검체 재취시 N-95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키로 하였으며, 발열증상 환자와 타 환자 간 1m 이상 분리 대기 등 개원가의 외래진료시 주의사항이 설명된 '일반 의료기관용 신종플루 환자 진료안내서'를 발표했다.

또한, 의협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장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환자들이 보건소로, 병의원으로, 약국으로 해매는 동안 발생할 전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고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역마다 환자들을 한곳



으로 모을 '지역치료집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현재 '신종플루 합동대책본부'를 범정부 차원의 '중양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시켜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소의 일반진료를 중단하고 가용인력을 즉시 투입해 국가방역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에서는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포항회장, 이정수 구미회장과 박재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신종플루 관련 시도 보건당국 및 의약계 합동회의 개최

대구시와 경상북도 보건당국과 의·약계는 신종플루에 총력 대응하는 협조·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금) 오전 11시 대구시청에서 합동회의를 개최하였다.

신종플루가 전국적 대유행 초기단계에 이어 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보건당국과 의료계 및 약업계가 힘을 합쳐 지역사회 중심으로 신종플루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신종플루 조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경북 보건관계 공무원,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김제형 대구의사회장, 대구·경북약사회장 등이 참석하여 △신종플루 대유행 등 상황 악화시 공동대처, △신종플루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공유, △상호업무 지원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기관·단체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회의 후 치료거점병원인 경북대병원을 현장 방문해 의료전달실태를 확인하였다.

민속축제장에서 신종플루 예방캠페인

2009 경북 민속축제 한마당 행사가 지난 9월 11일(금) 오후 2시부터 12일(토)까지 경주문화엑스포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본회에서는 축제 한마당행사장에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종인플루엔자 행동요령 전단지 1만매를 제작하여 행사장에 입장하는 시도민들에게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사장 입구에 발열카메라를 설치하여 출입자를 1차 감시하고, 2차로 체온측정을 실시하는 등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성공적인 축제 한마당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신종플루 예방 캠페인 행사에는 이석균 회장과 조현숙



부회장을 비롯한 경주시의사회 황병욱 회장과 임원잔과 사무처 직원이 참석하여 홍보활동을 펼쳤으며, 동국대경주병원에서는 전공의 회원을 파견하여 열감지기를 이용한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감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본회 회장, 구급대책협의회 회의 주재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방안 및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중환자용 구급차(M-ICU)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7일(목) 오후 2시 경상북도 소방본부에서 본회 이석균 회장(위원장)은 경상북도 구급대책협의회 회의의 주재하고 당면현안 추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이석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5명과 소방본부·소방서 중환자용구급차 운영자 16명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신종플루 대응에 구급대원들이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며, 중환자용구급차 특수구급차에 준해서 운영(장기적으로 법 개정)하고, 중환자용 구급차내 탑재약물 사용과 관련하여 의리지도 의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대구·경북방문 시정보고회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금) 오전 11시 30분 대구시청을 방문해 대구시로 부터 지역 현안 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이날 대구시청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범일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 본회 이석균 회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하여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및 2011년 세계육상대회 등에 대한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남은 임기 기간 동안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 나라 전체를 위해 사심 없이 일하겠으며 특히 대구·경북지역민들이 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지역을 찾은 소감을 덧붙였다.



회원동정

구미차병원 산업의학과 이채용 교수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스 후즈후' 등재



구미차병원 산업의학과 이채용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 '마르퀴스 후즈후 인터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년 판'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채용 교수는 2002년부터 구미 지역내 근로자들의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매진해왔으며, 연구에서도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국제학술지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디메틸아세트아미드에 의한 독성간염의 진단 및 관리 기준을 차례로 제시하면서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2009 국제 히포크라테스상 수상



이경섭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본회 부회장)이 2009년 영국 IBC에서 선정하는 2009년도 국제 히포크라테스 상 (International Hippocrates Award for Medical achievement)

을 수상했다.

이경섭 부회장은 2007년부터 3년 연속 영국 인명사전(IBC)이 선정한 올해의 주목받는 교수로 선정된 바 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정책자문위원 위촉



정능수 회원(의성, 동산연합의원, 본회 부의장)은 지난 9월 14일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되었으며, 그에 앞서 2008년 6월 26일에는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부위원장에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백승인 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2009년도 자문위원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2009년도 자문위원으로 백승인 회원(경주, 백승인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촉되었다. 각 단체에서 위촉된 자문위원 20명과 전경수 경주지사장은 지난 9월 24일 건강보험과 관련한 회의를 갖고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어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개최 및 사전등록 안내

사전등록은 본회 홈페이지 <http://www.igbma.or.kr> 에서...

본회에서는 회원연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여 회원들의 임상 진료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제를 준비하였사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의협 연수교육시행규정 제4조에 의하면 개원의 및 인턴교육병원 이하의 의료기관 봉직의는 해당 시도 의사회에서 4평점 이상 이수토록 되어 있으니 본회 추계학술대회에 등록하시어 소정의 **연간의무 평점(12평점)**을 이수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술대회 일정

- 1) 일 시 : 2009년 11월 1일(일) 14:00 ~ 19:00
- 2) 장 소 :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10층 대강당
- 3) 연수평점 : 대한의사협회 6평점
- 4) 등 록 비 : 사전등록 20,000원, 현장등록 30,000원
- 5) 입금계좌 : 농협 301-0012-0521-31 경북의사회

1. 추계학술대회 사전등록은

본회 홈페이지(팝업창)를 통해서 이루어지오니 회원님께서서는 **2009년 10월 30일(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별 평점 확인 :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 로그인 → 회원정보관리 → 상세회원정보 → 연수교육

프로그램

시 간	연 제	연 자	소 속
14:00 ~ 14:10	회장인사	이 석 균	경상북도의사회장
14:10 ~ 14:45	2009 마약류 관리 교육	이 정 기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
14:45 ~ 15:20	신종 인플루엔자의 이해와 관리	이 영 현	동국의대 내과
15:20 ~ 15:55	외래에서의 당뇨관리 및 최신지견	손 호 상	대구가톨릭의대 내과
15:55 ~ 16:15	coffee break		
16:15 ~ 16:50	피부 레이저 시술의 최신지견	이 지 민	웰피부과의원
16:50 ~ 17:25	개원의를 위한 유방초음파	황 미 수	영남의대 영상의학과
17:25 ~ 18:00	유방암 수술 및 재건의 최신경향	박 호 용	경북대 의전원 외과
18:00 ~ 19:00	원격의료 설명회	경 만 호	대한의사협회장

정치후원금 및 국회의원 후원 1인 1구좌 만들기 운동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전화 및 계좌입금을 이용한 기부방법

- 해당 지역구 및 선호하는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기부금을 입금합니다.
- 입금하실 때 '송금인란'에 직업(또는 의료기관 명칭)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 입금하신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 등을 알려줍니다.
- 소속 의사회에 기부 내역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기부방법

-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기부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http://www.nec.go.kr>)
- 실명인증 후 후원내역(후원 국회의원, 기부금 액수 등) 및 개인정보 입력
- 공인인증서 발급 후 인터넷 결제시스템을 통해 후원금을 결제(영수증 출력)
- 결제하신 후 후원회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인적사항 등을 알려줍니다.
- 소속 의사회에 기부 내역을 반드시 알려줍니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후원회에 가입 후 후원금을 기부하는 경우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 연간 2천만원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납입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금품 한도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 : 각 1천만원

- 국회의원,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시도지사후보자 : 각각 5백만원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금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

고액 기부자 명단 공개

- 개인 후원회에 연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 공개

정치자금 기부 후 세액(소득)공제는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세액(소득)공제 방법

-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후원금 중 10만원까지는 해당하는 금액 전액이 세액공제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이 소득공제됩니다.

※ 정치후원금을 10만원 기부한 경우라도 납부할 세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 만큼만 공제됩니다.

세액(소득)공제 환급시기

- 급여생활자(봉직의사 회원) : 매년 연말정산시(익년도 2월)
- 개인사업자(개원 회원) : 매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익년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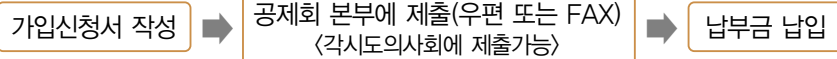
제29기

공제회 가입안내

(2009. 11. 1 ~ 2010. 10. 31)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가입접수 기간 : 2009. 10. 1 ~ 10. 31
- 유효기간(1년) : 2009. 11. 1 ~ 2010. 10. 31까지
- 가입절차 및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지로(GIRO) : 은행지로 7529092 ⇨ 전국은행 이용가능
계좌(은행) : SC제일은행 327-10-016923 [예금주: 사)대한의사협회]
※ 반드시 가입회원명(면허번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문의 및 사건상담

- 공제회 본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관할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 02-794-2480, 6587, 2474(ARS 9) / FAX 02-792-1361, 795-1346
- 대구·경북(주재사무소) ☎ 053-941-7102

제29기 기존공제 시행내용

- 제29기 기존공제의 특징
- 보상한도액 : 최대 1천만원
- 실제 진료행위를 기준으로 5개 종별 가입체제 :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참조
- 사건처리 절차 : 사건발생/접수 ⇨ 상담/조사/처리(합의중재) ⇨ 합의 ⇨ 심사/보상

가입종별 및 납부금표

종별	준용과목	진료영역 또는 범위	납부금
1종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	• 주사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주사행위는 2종가입)	70,000
2종	내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등	• 기본(외래)진료에 해당하는 것(주로 단순한 일반진료 영역) • 통상적인 주사, 투약의 진료영역 * 1종 진료영역 포함	170,000
3종	외과계열 · 정형외과, 신경외과 · 외과, 성형외과 등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 외과계의 처치/수술 등의 진료 • 마취수술에 의한 진료(마취통증과 통증클리닉 치료 포함) • 정신과 입원진료 • 성형외과는 미용목적의 본래의 진료(시술처치)와 달리 주사/투약/처치 중에 야기된 사고 • 안과의 경우 백내장/녹내장/엑시머레이저/라식수술 등 진료 * 1, 2종 진료영역 포함	420,000
특종A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3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 1, 2, 3종 진료영역 포함	750,000
특종B	산부인과	• 분만 또는 산부인과 수술(14주이상 24주이하 중절술 포함)을 시행하는 경우 * 1, 2, 3종, 특종A 진료영역 포함	1,300,000

* 준용과목과 관계없이 실제 진료하는 진료영역으로 가입종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Notice 공지사항

본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문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요약 안내합니다. 모든 공문 및 안내사항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igbma.or.kr>)의 의사회소식 → 온라인 공문에 게재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가입하시어 유용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지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본회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안내

■ 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 계도조치 →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가입자 등에게 초과 약제비 환수(시행 일자 2009. 8. 1)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지침에 대한 주의 안내

■ '만성질환관리료'는 현행 급여기준 상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 가능하며,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개인별 진료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만성질환자를 교육·상담한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을 재안내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 및 관련 사항 안내

■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의료법 제91조 제1항의 양벌규정(종업원 등이 동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주요내용 및 설명자료 안내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제약업계 자율협약 관련 안내(공문 제346호, 2009. 8. 13)

■ 최근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에서 정부의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고시(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시행을 통한 리베이트 척결의지 표명과 맞물려 '의약품 투명거래를 위한 자율협약'을 마련, 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

■ 이와 관련하여 한국제약협회에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제약업계의 결의내용이 의료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의협은 의료계의 입장에서 동 자율협약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 진행키로 함을 안내

노동부 소속 전국지방노동청의 정기근로감독 관련 주의 안내

■ 최근 경인지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에서 8월부터 10월 중 직원수 10인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관련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동 정기근로감독에서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대장(지급근거자료 포함), 퇴직자의 퇴직금산정서 및 지급 근거자료, 연·월차·생리휴가 사용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

■ 더욱이 전국노동청에서 이번 경인지역 근로감독 실시 결과를 주시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음을 안내

마약류 광고위반 보도관련 협조사항 안내

■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약장사하는 보건소·학교 강좌'라는 제목으로 국내 제약사가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를 주체로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판촉하였다고 보도

■ 이에 식약청에서는 해당 제약사가 새로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환자 창출 등의 목적으로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에서 실시한 소아정신과 학부모 강좌를 통해 당해 제조품목을 ADHD치료제의 대표적인 약물로 기재된 강의자료를 강사(의사)에게 제공하여 강의하게 하는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

14조(광고)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종 건강강좌(교육, 홍보 등)시 특정 제품을 광고하지 아니하도록 협조 요청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의 감염전문관리료 특례 적용 안내

■ 복지부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관리를 유도하고자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서 한하여 감염전문관리료를 한시적으로 특례 적용키로 하였음을 안내

구 분	세 부 내 용
수가코드 및 적용수가	수가코드 : AH400(신종플루 감염전문관리료) 적용수가 : 가8 협의진찰료 AH100의 소정점수로 산정
적용기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거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 산정함
적용시점 및 기간	2009. 8. 26일 기준 신종인플루엔자로 입원중인 환자부터 신종인플루엔자 경계, 심각 단계에 한하여 적용함

소아 예방접종 업무관련 협조요청

■ 식약청에서는 최근 국회 황영철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아 예방백신 접종시 보호자가 백신 예방접종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어 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의·약사 등 전문가들의 백신 유해사례 보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유해사례 보고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없는 등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소아 백신 예방접종시 보호자들에게 백신 접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독려하여 줄 것과 아울러 백신 접종으로 인해 유해사례들이 발생하는 경우 식약청에 즉시 보고되어 백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안내

원격의료관련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의협 입장 등 대회원 안내

■ 2009년 7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원격의료제

도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이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조건으로 '원격의료' 도입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

■ 이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주요 경과 및 내용, 의협의 입장, 그리고 향후대책 등에 대해 안내

신종플루 신고 협조 요청

■ 환 자 : 진단검사를 통해 신종플루가 확진된 자
■ 의심환자 :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어 입원 조치한 환자 또는 입원 후 신종플루 감염을 의심하게 된 환자

※ 동 신고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의함.

※ 작성시 참고사항 : 별지서식 중 전염병명-제4군-신종전염병증후군(증상 및 징후)에 체크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 환자' 또는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입원)' 중 명기

신종플루 예방 및 관리지침 개정 및 항바이러스제 선제적 투여 적극 협조 요청

■ '비록 고위험군이 아닐지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지속되는 열·기침·가래·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가능한바, '의사들이 전문적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여'로 중증질환자 발생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

사업장 근로감독관련 의료기관 표준 노무지침 홍보 협조요청

■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내 직원수 10인 이상 의료기관 중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의협에서는 근로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일선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을 참조하여 향후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처방 및 확진검사 관련 안내

- 신종플루가 의심될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고위험군이면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확진검사 필요없이 중증으로 진행될 징후(지속되는 발열, 기침, 가래, 호흡곤란)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면 즉시 항바이러스제 처방이 가능함
- 확진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Real time RT-PCR이나 Conventional RT-PCR법을 사용하되 환자들이 다른 검사법(신속항원검사)을 확진검사로 오해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신종플루관련 대국민 및 대의원용 교육자료 활용 협조 요청

- 의협은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상황에서 막연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신종플루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회원들에게는 보다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국민·대의원용 교육자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회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자료를 활용토록 안내

의료기관 감염예방 협조사항 안내

- 병원감염은 의료의 질 저하, 유병율 증가, 경제적 손실 등 의료기관의 대외 신임도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의료법」에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두어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병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인과의 신뢰 증대를 위해 의료인은 손씻기(손소독) 생활화, 일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서 가운 등 미착용, 진료 중 벡타이 안매기 등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
-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술복, 가운, 수술포, 마스크, 모자 등은 의료기관 세탁물로 분류되어 있으며, 세탁물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가운 등의 세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

의료장비 전산점검 확대 안내

- 심평원은 그간 적용되지 않던 장비에 대해서도 12월부터 전산점검 확대 적용키로 한 바, 의료장비 등록여부에 대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요양기관 서비스 공인인증 로그인 → HIRA Plus Web → 현황조회)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

구 분	장비번호	장비명
검사장비	011	전기영동기
	052	질량분석기
	062	비침습적 심박출량측정기
	066	Mapping 장비
	063	이내시경
이학요법장비	148	의료용전자기발생기
	120	피부광화학치료기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선제적 투여와 관련한 유권해석 안내

- 정부의 「신종인플루엔자A(H1N1) 예방 및 환자관리 지침」에 따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 항바이러스제 및 해열제·항생제 등을 선제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삭감조치 하지 않음

신종인플루엔자 내성 바이러스 감시 강화 협조요청

-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동 사례를 보고하고 검체를 채취하여 보건소에 송부(필요시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바이러스수송배지 제공), 보건소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 송부
- 보건환경연구원은 유전자검사를 실시, 양성으로 확인시 검체를 질병관리본부(인플루엔자바이러스과)로 송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련 협조요청

-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복지에 유치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8조)을 부과받을 수 있음에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진료를 하려는 회원들이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의료법 안내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장 초청 의료현안 간담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김광만)는 지난 7월 21일(화) 오후 7시 30분 우미향에서 박승호 시장, 서호승 북구보건소장과 임원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 및 필수예방접종 국가일부 부담 사업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문제와 일본인 의료관광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신종플루 임시 상담소 운영

지난 9월 8일(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포항시 승격 60주년 및 영일만항 개항기념 KBS 열린음악회 행사장에서 '신종플루



임시 상담소'를 설치하고 열린음악회에 참여한 포항시민들에게 신종플루 상담 및 진료를 하였다.

이날 김광만 회장, 이해철·양숙경 부회장, 신명준 기획, 황석순 법제, 서보균 의무, 문기혁 공보이사 외 간호사 2명이 참석하였다.

신종플루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지난 9월 3일(목) 오후 7시 30분 포항시의사회관에서 포항시 보건소장 및 방역담당 관계자와 거점병원 신종플루 담당의사들과 제5차 상임이사회 및 보건소장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집행부 임원과 거점병원 담당의사, 포항시 북구보건소장 및 남·북구보건소 방역담당자가 참석하여 신종플루 환자 진료 안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포항시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대응책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경주시의사회

제6차 확대이사회 개최

경주시의사회(회장 황병욱)는 9월 8일(화) 오후 7시 풍년참가 자미횃집에서 제6차 확대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종플루 관련 대처방안 논의와 2009년



분회 및 병원소식

도 추계야유회는 경북도의회 등반대회와 겸하여 개최하고 관광버스 1대를 대절하고, 음료수 및 간식을 준비키로 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키로 하였으며, 경주 YMCA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를 10월 11일(일) 오후 2시~6시까지 서라벌대학교 원석체육관에서 실시하고 백승인·서보완 회원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다.

신종플루 감염대책회의 개최

9월 16일(수) 오후 1시 경주시의사회관에서 신종플루 감염대책회의가 열렸다.

이날 황병욱 회장은 신종플루 대응지역협의체 정기회의(보건소 주관)의 자료를 토대로 국내 발생현황 및 주요 대응정책 개정사항에 대하여 전달하였으며, 매주 수요일 의사회관에서 감염대책회의를 수시로 열고 일선의료현장에서 겪은 경험이나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한 정보교환을 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의료봉사

8월 4일(화)부터 8월 9일(일)까지 백승인·마도훈·이봉구 회원은 베트남 빈탄과 안퐁 마을에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2,345명의 환자를 무료진료 하였다.



안동시의사회

정기이사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묵환)는 지난 9월 9일 19:00 부속한정식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며, 안동시의사회 세부일정을 논의하였다. 이날 정기이사회에는 김묵환 회장을 비롯한 임원 15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구미시의사회

구미시와 함께하는 금연사업 협약 체결

구미시의사회(회장 이경수)는 8월 28일(금) 오후 1시, 구미보건소(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소장 구건회) 및 구미·선산금연클리닉센터(센터장 최연희)와 공동으로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연사업을 함께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연사업 협약체결을 하였다.

이 행사는 구미시에서 지역의료인과 함께 하는 금연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금연분위기조성과 금연실천율 증가를 위해 180개 병(의)원이 “금연권고 협력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며 의료기관을 찾는 흡연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연상담과 금연권고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를 통하여 시민들의 금연실천을 지원하게 된다.



정기총회 및 신종플루엔자 대응 교육

구미시의사회는 지난 9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전반기(3월~9월)회무 총회를 겸하여 신종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한 신종플루엔자 대응 의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전반기 회무보고와 향후 회무사업에 대한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였으며, 일반의료기관에서의 신종플루 환자 진료안내서를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신종플루 유행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긴급 비상대책 합동반회 개최

신종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관리를 유도 및 가을철 대유행이 예상되는 신종플루 총력 대응하는 협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구미보건소장(이원경)이 참석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회에 걸쳐 합동반회가 개최되었다.



고문 초청 간담회 개최

구미시의사회에서는 고문 초청 간담회가 9월 10일(목) 오후 7시 30분 대해일식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신종플루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플루관련 진료안내에 대한 유인물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회무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격려를 부탁한다는 회장님 인사말과 현 집행 회무방침에 대한 격의없는 대화로 간담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영천시의사회

임시총회 개최

영천시의사회(회장 배경일)는 9월 15일(화) 오후 7시 30분 대어횃집에서 영천시의사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현안 및 신종플루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



상주시의사회

월례회 개최

상주시의사회(회장 이원두)는 지난 10월 15일(목) 오후 7시 힐 하우스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 논의 및 소화기질환의 최신지견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날 상주시의사회 이원두 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현안 논의로 최근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당부를 요청하였으며, 상주시의사회 회



원 친목 골프대회 개최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줄 것과 본회 추계학술대회에도 등록하여 평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어 계명대 소화기내과 조광범 교수로부터 '소화기 내시경적 치료의 최신지견' 등 2편의 강의를 듣고 상주시의사회 10월 월례회를 마쳤다.

경산시의사회

경산시의사회 제1회 골프대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장유석)는 9월 13일(일) 경산인터볼고CC에서 제1회 경산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골프대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더불어 경산시의사회의 단합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울진군의사회

의사회 및 보건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울진군의사회(회장 이종규)는 9월 3일(목) 울진군의료원 및 보건관계공무원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성공적인 울진엑스포를 위해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진료소를 지켜준 회원들과 2차병원으로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은 울진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분

들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향후 의사회와 의료원, 보건단체간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고 신종플루 확산과 예방에도 상호 협조를 다짐하였다.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복지기관 진료지원 협약 체결

경상북도 안동의료원은 안동애명복지촌(대표이사 남숙자) 외 20개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8월 26일(수) 진료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 내용은 의뢰 환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의학정보 교환, 요양시설 환자의 건강증진 도모,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응급상황에 따른 이송체계 구축 등이다.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와 협약

안동보호관찰소와 안동의료원은 8월 7일(금)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문신제거를 원하지만 고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지우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 무료로 제거해 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의료원은 경북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 운영과 관련, 가해자 관리 등 보호관찰소 연계 지도가 보강돼 전국 유일의 서비스를 갖춘 의료원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안동시, 건강도시 조성 협약

안동의료원과 안동시는 8월 23일(일) 의료원 6층 대강당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프로젝트와 건강도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살기 좋은 건강도시 안동' 조성에 상호 협력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안동시와 안동의료원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안동시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성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Quality of Life)에 필요한 종합적
 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안 동 병 원

‘한여름 작은음악회’ 개최

안동병원 주최로 ‘한여름 작은음악회’가 8월 17일(월) 환자와
 보호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안동병원이 슈베르트음악학원 드림아이 중창단
 을 초청,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선율을 병원 환자와 보호자들
 에게 선사하였으며, 특히 남성 중창단 ‘Soul’이 특별출연해
 향수, 김밥 등 아름답고 흥겨운 하모니를 전달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안동성소병원

청송군과 의료서비스 협약 체결

안동성소병원과 청송군은 7월 29일(수) 청송군청 회의실에서
 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환자진료를 비롯해 의학 정보와 기술의 자
 문과 교환, 환자수송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개원100주년 기념행사 및 역사 사진전 열어

개원 100주년을 맞은 안동성소병원이 지나간 100년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사진전을 열어 지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번 사진전시회에는 성소병원의 지나간 100년 역사가 담긴



사진 100점과 새로운 100년을 위한 비전을 알 수 있는 사진
 은 물론 경안성서신학원의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발
 자취를 되돌아보는 사진과 함께 성소병원의 재단인 서울 명성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느낄 수 있는 사진이 함께 전시된다.
 아울러 지난 10월 12일 오전 11시에 8층 대강당에서는 김삼환
 성소병원 명예이사장 김삼환 목사과 박승국 병원장, 김휘동
 안동시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고계 및 지역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
 되었다.

북부지역 5개 시군 다문화가족연합과 자매결연

안동성소병원이 지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게 보다 더 많
 은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문을 연 외국인진료센터가 한 달 평
 균 1백여 명이 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찾으면서 ‘건강’
 을 선물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북부지역 최초로 개소한 외국인진료센터(소
 장 이충원)는 지난 6월 18일에는 영양군국제결혼가정연합회
 (회장 심상국)와 자매결연을 맺고 영양지역 다문화가정에게
 의료제공의 기회를 늘렸으며, 9월 9일에는 안동시와 영주시,
 의성군, 예천군 4개 시군지역 다문화가족연합회와 공동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더 많은 다문화가족에게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동성소병원 100주년 기념 건강강좌 및 KOL 강연회 개최

개원 100주년을 기념해 9월 17일 안동교회 내 영국아트홀에서 '관절이 불편하십니까? 물어봅시다'라는 주제로 '100세 건강강좌'가 열렸다.

이번 건강강좌에는 안동성소병원 이성호 정형외과장과 대구 가톨릭대학병원 최정운 류마티스센터장이 지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강연하였다.

또한 대구·경북지역의 신경외과 교수들을 강사로 초청해 경북지역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KOL(Key Opinion Leader) 강연회를 개최하며,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경북지역 의사들 간의 학문적 교류가 왕성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사회원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제6회 글마당대잔치 시상식

안동성소병원이 개원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6회 글마당대잔치에서 안동 성장여고 양빛나(16)양이 영예의 대상인 안동 교육장상을 수상했다.

전국 초중고교생과 일반인 850여명이 참가한 이번 글마당대잔치는 '문학을 통한 국민 정서함양과 행복한 꿈 나누기'를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공모전 형식으로 개최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6백 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순천향 인술 30년-개원 30주년 기념식 거행

순천향대구미병원은 9월 1일(화) 오후1시 구미 평생교육원에서 내빈과 직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개원 30주년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1979년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으로 문을 연 순천향대구미병원은 입원환자 300만명, 외래환자 670만명, 신생아 출산은 8만명 등 지역 병원으로서는 보기드문 의료실적을 거뒀으며 시승격 31년인 구미시의 발전과 더불어 구미공단 근로자 및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오천환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30년간 축적한 역량과 잠재력을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향해 정진하겠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 수술 성공

지역에서는 처음, 경북도내 두 번째로 복부 대동맥류에 대한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을 혈관 조영기를 이용, 성공적으로 시행하였다.

이번 수술은 순천향병원 흉부외과수술팀 박영우, 이재욱, 이동기 교수의 집도로 복부 불편감을 호소한 80세 남자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수술팀은 복부를 30cm 이상 절개, 대동맥을 인조혈관으로 대처하는 기존 수술방법이 아닌 혈관 조영기를 이용해 합병증도 적고 수술후 후유증도 거의없는 방법을 택했다.

꽃꽂이 전시회

꽃의 아름다움과 내원객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는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꽃꽂이 전시회를 9월 1일(화)부터 열었다.

전시된 작품은 총 18작으로 이 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꽃꽂이 동아리 회원들이 다양한 소재와 화형으로 로비를 장식해 내원객들로 부터 극찬을 받고 있으며, 꽃그림을 그리는 진단검사의학과 안지영 교수의 그림 작품도 전시되어 꽃 향기 가득한 병원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9월 12일(토) 구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을 초청해 소변·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레이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평소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무료검진 후 의사 상담을 통해 소화기질환이 의심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시경 및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CHA의대부속구미차병원

관절전문센터' 개소

7월 29일(수) 구미차병원 2층에서 관절전문센터(센터장 단진명)를 개소했으며, 구미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번 관절전문센터는 지역민의 의료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구미차병원 관절전문센터는 인공관절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관절질환의 진료와 치료에 참여하며, 슬(무릎)관절, 고



(엉덩이)관절, 견(어깨)관절, 주(팔꿈치)관절, 척추관절 등 5개의 세부 진료 체계로 운영된다.

더불어 관절질환의 조기진단과 치료 향상을 도모하고자 관절경 시스템 및 관절재활장비 등 첨단 의료기기를 도입했다. 또 환자가 한 곳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One-Stop 진료체계도 구축했다.

척추통증센터 개소

9월 9일(수) 병원 2층 척추통증센터(센터장 권성오)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으며, 최근 지역사회에서 척추 환자의 의료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시점에 발맞추어, 우수한 의료진과 최첨단 미세 수술용 현미경과 척추수술전문 수술테이블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또한, 환자중심의 쾌적한 진료실, 환자가 한 곳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으로, 새로이 척추통증센터를 개소하여 척추질환의 진단 및 수술, 통증 관리까지 일련의 치료과정을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등이 신속하게 협진체계 및 진료체계를 구축하여 척추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우리전통 국악 연주회 가져

9월 26일(토) 전통예악원(강준영 원장)은 구미차병원을 찾아 내원환자와 보호자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 국악 연주를 가져 병마에 시름하는 환자들에게 희망의 선사 하였다.

이번 연주회는 국악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인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경북지부 회원들로 이루어져 한국 전통악곡의 하닌 '천년만세' 와 대금산조, 민요메들리, 가야금명창을 비롯해 해금, 가야금, 대금 실내악으로 '내가 찾는 아이' '푸르다'



‘에델바이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등 기악합주, 한국무용 등으로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추석을 앞두고 우리 고유의 옷인 한복을 입고 추는 무용과 우리가락을 듣게 되어 병원을 내원한 환자 및 보호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간의 날 기념 지역민을 위한 간 질환 공개강좌 개최

구미차병원은 제10회 간의 날을 기념하여, 간 질환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10월 9일(금)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위한 간 질환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질환 공개강좌는 많은 사람들이 간질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성 음주, 약물의 오·남용, 검증되지 않



은 치료, 간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간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지역민들에게 올바른 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민과 함께하는 간 질환 시민초청 건강강좌로 실시하였다.

울진군보건의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

울진군보건의료원은 9월부터 11월까지 표본으로 선정된 890 가구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009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건강조사는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및 의료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며, 질병이환, 사고중독, 의료이용, 건강행태, 활동제한 및 삶의 질 등 300문항의 조사가 이뤄지며,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상자를 고르게 선정해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건강 통계를 각 지역에 적합하고 체계적인 보건사업 계획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된다.

울진보건의료원, 출산준비 교실 운영

9월 4일(금)부터 25일(금)까지 매주 금요일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에서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출산준비교실 ‘예쁜 맘 고운 아기’를 운영하였다.

이번 출산준비 교실은 저출산 극복 동영상 보기, 임산부 용품 만들기, 임산부를 위한 체조,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성공전략, 모유수유 성공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산부 산전·후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하고, 강의 마지막 날에는 수료식도 가지는 등 임산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지식을 익혀,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출생아 및 가족건강의 증진에도 이바지 하였다.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분회 회무홍보 및 지역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의사회 탐방

포항시의사회

1953년 발족된 포항시의사회는 회원수 570명인 거대 의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37대 김광만 회장을 선두로 경상북도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의사회 발족

포항시의사회는 1953년에 발족되었으며 그 후 1952년 12월 30일 경상북도의사회가 재발족함에 따라 1953년 10명 내외의 포항시내에 거주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 초대회장에 김동철 회원을 추대하였다. 그 후 매년 12월 중에 송년회 겸 총회를 개최하여 임원개선을 하고 경상북도의사회칙에 준하여 의사회를 운영해 왔다.

의사회 명칭

포항시의사회 명칭도 몇 차례 변경되었다. 경상북도의사회 포항시분회가 되었다가 지부란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에 의하여 의사회가 일시 해체되기도 하였다. 1961년 9월에 다시 의사회가 구성되고 1967년부터 경상북도의사회 포항시분회란 이름에서 포항시의사회로 개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사회칙

1957년에는 병원 1개, 의원 8개로 회원수는 13명이었으나 1959년에는 병원 1개, 의원 18개, 회원수 22명으로 회세가 배가됨으로서 회칙의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현행 회칙의 모체인 초안을 1961년 정기총회에 발의하여 결의하였다.

1960년대 초부터 경상북도의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여 의사회의 운영에 있어서 상호협력이 원만하





매년 4월 개최되는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는 회원·회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년에 두 번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야유회겸 동반 대회와 포항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와 축구대회가 매년 열린다.

였고 1960년대 말부터 경상북도의사회에 회비 납부도 하고 1970년대 초부터는 보수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1953년 회가 발족하면서부터 1971년까지 임원의 임기가 1년 단위였던 것을 1972년부터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였고 1982년 25대 이병채 회장부터 경상북도의사회의 임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임기를 3년으로 개정했다. 그리고 독자적인 사무실을 설치하

고 전담직원을 채용하여 정상적인 회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27,28대 최동하 회장, 29대 신은식 회장 후 1995년 30대 김형우 회장 시 3년 임기는 회 집행부에 물심양면의 부담과 희생이 큼을 고려하여 2년으로 임기를 환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의사회 위상

1981년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한 후 대구시의사회가 경상북도의사회에서 분리하여 대구직할시의사회로 독립함에 따라 포항시의사회가 회원수나 회세에 있어서 경상북도의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수대에 걸쳐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맡아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도 적극적으로 회무에 관여하고 있다(경상북도의사회 33,34대 오삼달 회장, 35대 이병채 회장, 36,37대 신은식 회장, 40대 이원기 회장 역임).

주요사업

매년 4월 포항시의사의 날 행사가 있다. 이 날은 회원·회원 가족 모두가 참여하여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를 가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년에 두 번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야유회겸 동반 대회와 회원들

의사회 규모

199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제법에 따라 포항시와 영일군이 행정적으로 통합되자 포항시의사회와 영일군의사회도 통합함으로써 회원수가 250명으로 증대되고 병의원도 134개로 회세가 더한층 약진하게 되었다.

31대 서상하 회장, 32대 변승렬 회장을 거쳐 33,34대 이원기 회장시에는 의약분업투쟁에 포항시의사회가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는 등 회원간의 단결

이 더욱 고취되었다. 35대 오세진 회장, 36대 권영철 회장시에는 회원수와 회세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10월 6일 현재 레지던트 수련병원인 선린병원, 포항성모병원의 종합병원 2개, 병원 12개, 요양병원 12개, 의원 238개, 회원수 570명인 거대 의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명실공히 사단법인 대한의사회회 경상북도 포항시의사회란 명칭하에 37대 김광만 회장을 선두로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간의 골프 실력을 겨루는 포항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와 종합병원 간 <포항시의사의 날>의 포항시의사회장배 축구대회가 매년 열린다. 의사회원들 간의 동호회 모임으로는 바둑, 산악회, 중창단, 테니스 모임이 있으며 특히 산악회는 군산 산악회와 교류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중창단은 포항시약사회와 교류를 하고 있다.

지역사회 사업으로는 청소년 무료 문신 제거수술, 포항 시내 거주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포항시 60주년 행사에 있어서 신종플루 확산 방지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후쿠야마시의사회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하여 두 도시 의사회간의 친목을 통해 의사회의 국제화에도 힘쓰고 있다. 학술 사업으로는 일년에 4회 포항시 의사회지를 발간하여 회원 상호간의 소식과 학문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 학술증진을 위한 세미나에 적극 후원하고 있다.

(정리 : 공보이사 문기혁)

◆ 임원명단 : 회장 김광만, 부회장 성승모 · 이해철 · 양숙경, 기획이사 신명준, 학술이사 류길수, 재무이사 이종수, 법제이사 황석순, 의무이사 서보균, 보험이사 권영무, 공보이사 문기혁, 정보이사 김기홍, 정책이사 김남일, 이사 김기득 · 김익 · 서보건 · 신승호 · 우창호 · 이인태 · 정상윤 · 정숙형 · 최진교, 감사 홍성철 · 송준화

포항시의사회가 속해 있는 포항시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도시라는 위상과 함께 힘찬 도약을 하고 있다.

국제적 철강 기업인 포스코는 포항시 경제의 큰 축을 이루고 있으며 올해 개항한 신항만은 영남 물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포항공대는 포항이 자랑하는 명문 대학으로 방사광 가속기 연구소, 지능 로봇연구소, 생명공학 연구센터와 함께 포항의 자랑이다.

포항시의 주요 관광지는 내연산 보경사, 국립등대박물관, 경상북도 수목원, 운제산 오어사, 환호해맞이공원, 죽도시장, 포스코 역사관,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북부, 칠포 및 월포 해수욕장, 호미곶 등이 있다.

특히 호미곶은 한반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 곳으로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내연산 보경사는 맑은 계곡물과 웅장하고 수려한 산새가 어우러진 곳으로 동동주와 산채 비빔밥이 맛이 있어 가족들과 휴일에 등반하기 아주 좋은 곳이다.

죽도시장은 경북 동해안 최대의 재래 시장으로 싱싱한 회와 겨울철에는 포항 명물인 과메기를 먹을 수 있으며 매년 북부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포항 국제 불빛축제는 매년 열리는 볼거리이다.

포항시의사회원들이 추천하는 주요 음식점

고기집_ 우미향(277-7666), 목장마을(274-0858)

회 집_ 고래시냇(275-5293), 연화회식당(246-5658), 과메기 특구 김순화식당(283-9666), 신승리 회식당(231-1688), 산해정(252-0777), 경주회집(244-9410)

한정식_ 이조한정식(251-4001), 예이제(278-3888), 내연산 진주식당(261-7117),

중식당_ 동순관(282-4438), 영일대 중식당(221-9457)

양식당_ 예나지나(278-6555)



포항 호미곶



星州

» 지역의사회 탐방

성주군의사회

원로이신 이철상 원장님을 필두로 모든 일에 신속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이며 많지 않은 회원이기에 긴급현안에서는 당일 신속히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동성이 있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투쟁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성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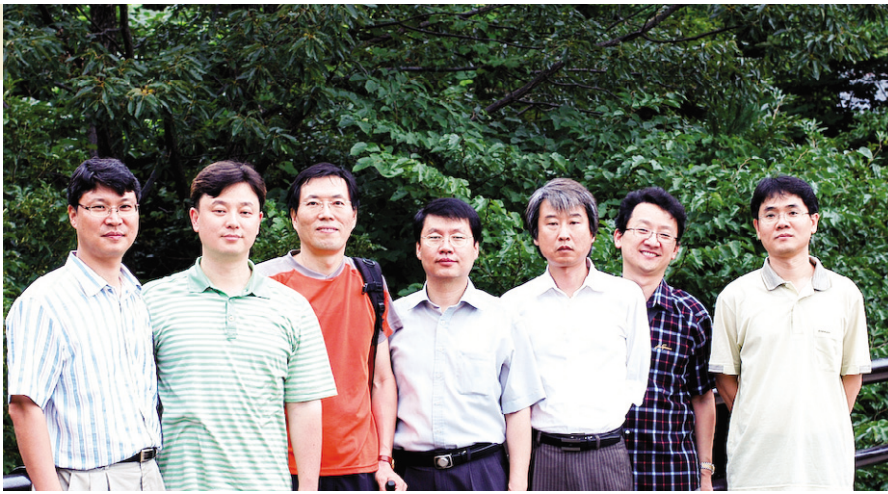
노란색으로 상징되는 성주는 전국 참외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며, 비닐하우스가 너른 들에 빼곡히 서 있고 봄이면 단내가 물씬 바람에 실려 코에 스며드는 고장으로 경북 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서 맑은 날 서쪽을 바라보면 뚜렷하게 보이는 가야산 봉우리 아래에 자리한 성주는 선비의 고장, 유림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고려때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진 京山府에서 조선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행정구역 축소로 아주 작아진 고장이다.

큰 산을 품은 성주는 예로부터 성현들과 큰 인물이 태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근대 인물로는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선생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그렇듯이 성주군은 현재 인구 4만 7천명 정도의 적은 군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영화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면서 산업단지와 학교를 유치하여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세를 확장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성주군의사회는?

역사가 오래되면 예전의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한 연혁을 알수 없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듯이 우리 성주군의사회도 처음에 소수의 인원으로 시작하다보니 따로



우리 의사들과,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성된 성주의료인연합회가 25년이나 지속하고 있으며, 당면문제를 토의하고, 유대를 쌓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잔디를 밟는 모임을 의사회에서 연중 2회 정도 열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다. 하지만 분명히 경북의사회와 같은 궤를 걸어온 지부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주요사업

상주시의사회의 장점은 원로이신 이철상 원장님을 필두로 모든 일에 신속하고 단결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많지 않은 회원이기에 긴급현안에서는 당일 신속히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동성이 있고,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투쟁에는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모임은 2~3개월마다 하는 정기 모임과 현안에 따른 임시회의 등이 있다.

2003년부터 방종경회원이 회장을 맡아 현재까지 장기집권을 하고 있고, 총무는 최병영회원이 수고를 하고 있다. 관내에서 여러 회원들이 사회단체 모임에 참여하고 주요 직책을 맡아 활동 중이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료 지원을 2005년부터 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는 당연히 하고 있다.

우리 의사들과, 한의사, 치과의사로 구성된 성주의료인연합회가 25년이나 지

의사회 규모

현재 성주군 관내의 병원 및 의원은 다음과 같이 단출한 편이다. 병원으로는 성주혜성병원(정해훈)이 있고, 3군데의 요양병원은 세명이요양병원(이상운), 성주효요양병원(노태맹), 가야이요양병원 등이 있다.

개원의는 17개 의원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철상외과의원, 덕산의원(방종경), 안제의원

(조영환), 초전성모의원(김명원), 선남의원(전현우), 대성의원(김정호), 성주동산연합외과의원(강만수), 가톨릭내과의원(최종원), 조공래제통의원, 초전중앙의원(현민욱), 열린외과의원(이준희), 정성제통의원(최병영), 성주동산연합안과의원(김학용), 벽진의원(손영배), 가천파티마의원(이방욱), 제일의원(어광선), 서울연합의원(진준우).





속하고 있으며, 당면문제를 토의하고, 유대를 쌓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점이 되고 있다.

잔디를 밟는 모임을 의사회에서 연중 2회 정도 열어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회원

회원들의 타 영역에서 재능을 살펴보면 노태맹 회원은 90년 시인으로 등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시집으로 <유리에 가서 불탄다> <푸른 염소를 부르다> 가 있으며, 현민욱 회원과 조공래 회원은 낚시를 취미 이상으로 즐기는 조사들이고, 최병영 회원은 사진에 조예가 깊다. (정리: 회장 방종경)

◆ 임원명단 : 회장 방종경, 총무이사 최병영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주읍 성박숲에는 왕버들 노거수 6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안성마춤이다.

성주를 자랑하려면?

첫째로 **가야산 국립공원**이다. 대가야와 금관가야의 시조의 어머니 정견모주의 전설이 있는 산이다.

가야산의 60%가 성주군에 속해있고 몇년 전 가야산 정상 어디냐를 놓고 실측을 하여 이전에 알고 있던 정상 우두봉(1430m)에서 건너다 보이는 칠불봉(1433m)이 더 높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성주군에 속해 있음) 앞으로 성주 가야산으로 불러주면 좋겠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미 가야산에 가보았겠지만, 매일신문 취재팀에서 1년간 신문에 연재하고 책으로 엮은 [상생의 땅, 가야산]을 참고하여 성주 가야산으로 오시길 권하고 싶다. 등산 초입인 백운동에는 가야산 야생화식물원이 있으니 둘러보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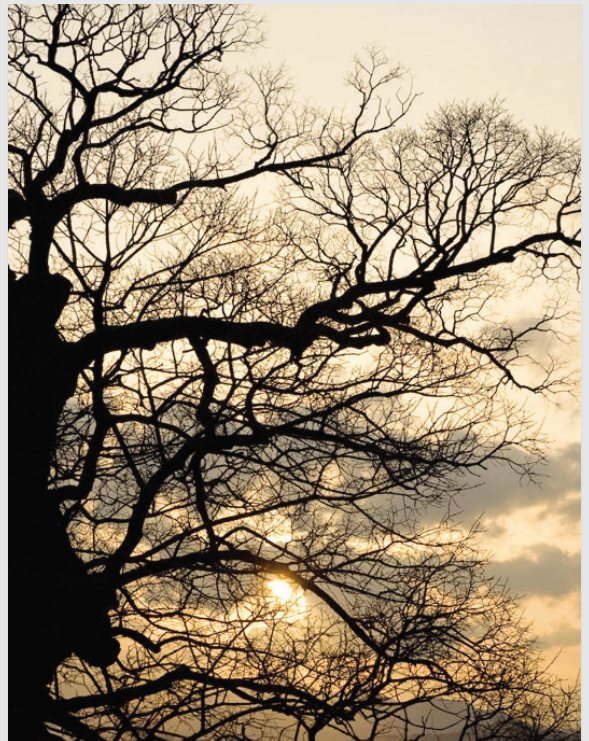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가야산 북쪽사면에서 발원하여 대가천으로 흘러가는 **포천계곡**이 있다. 가천면 신계리, 용사리로 올라가면서 길 따라 맑은 계곡이 펼쳐있다. 이곳을 들렀다면 근처에 있는 독용산성에 올라 성주담과 가야산을 조망하면 가슴이 확 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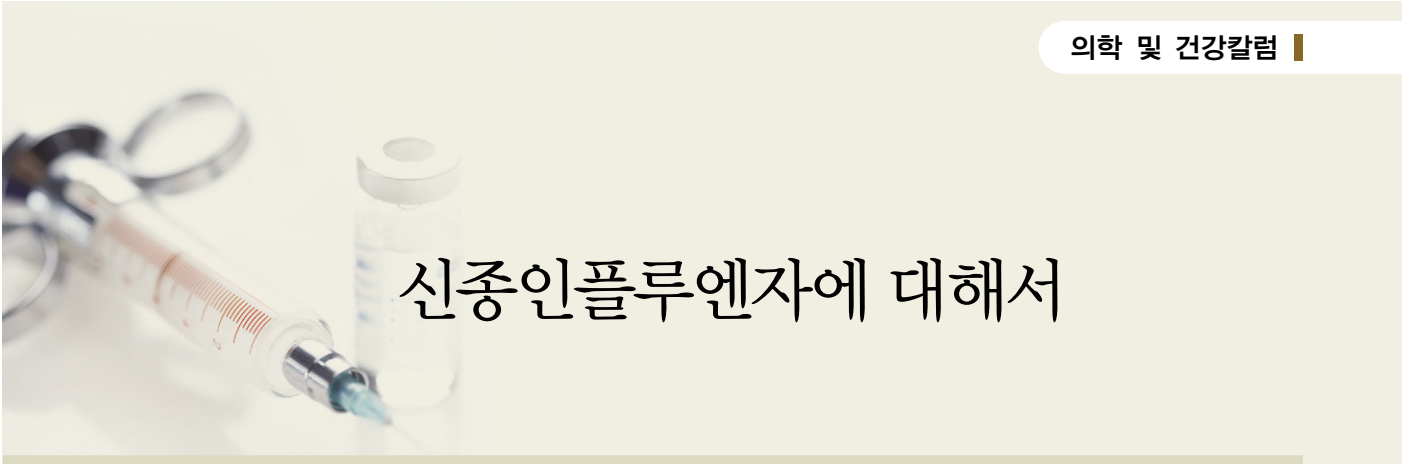
성주담을 지나 상류인 금수면으로 대가천을 따라 올라가면, 어디서나 내려서 발을 담그고 싶은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이 무수히 많다. 무흘구곡으로 이름이 지어진 기암괴석들을 찾아보면서 무주로 넘어갈수 있다.

그 외 가보면 좋은 곳은 고가옥들이 모여있는 **한개마을**(선남면)이 있다. 이곳은 얼마전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 촬영지

였다. 세종대왕자태실(월향면)이 있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성주읍 성박숲에는 왕버들 노거수 60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어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안성마춤이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비닐하우스를 밤에 차를 몰고 지나다 보면 바닷물이 출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이 느낀 감정일까? 출근하는 고개길 마루에 올라서면 멀리 보이는 가야산 영봉과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형 H1N1 type과 다른 것으로 1918년 대유행기의 H1N1 type과 유사한 형태이다. 임상적 특징도 단기간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pandemic) 예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호흡기내과 이영현

다윈의 '종의 기원'의 무대인 갈라파고스섬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다. 외래와 격리되었던 섬이 노출되어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났는데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육지 모기의 이주였다. 원래 섬에는 해안가에만 모기가 살았는데 숲에도 살 수 있는 모기가 이주함에 따라 교잡종이 생겨 결국 숲속에도 모기가 들끓게 되었다. 그 결과 숲속의 새가 모기가 옮겨주는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 흥미롭게도 갈라파고스섬의 새를 죽임으로 모는 대표적 질병이 열대성 말라리아였다. 원래 열대성 말라리아는 새의 질병으로 인간에게 옮겨져 인간의 질병이 되었는데 말라리아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형태이다. 그런데 야생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사람의 피를 빨 모기가 새의 피를 빨아 질병을 옮겨주게 된 것이다. 진화의 방향은 가끔 거꾸로 가기도 하는데 갈라파고스섬 생태계의 변화는 인간에 적응한 말라리아가 원래 숙주인 새에게로 가는 양상을 보여줘 흥미롭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질병이 종간의 장벽을 넘어서서 인간의 병 되는 순간 커다란 재앙이 된다. 사망률이 20%에 달하는 사스나 아직도 예방만이 가능한 광우병이 대표적인 예이다. 인간 사이에 퍼지는 병이 되면 시간이 경과 할수록 병의 파괴력은 감소하게 된다. 예민한 개체는 죽게 되고 저항능력을 가진 개체는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결국 병을 이기는 개체만 남는다. 갈라파고스섬처럼 고립된 지역이라면 사정은 달라 처음 순간의 악몽이 재현된다.

상기 관점에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몇 가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H1N1 type의 인플루엔자는 1918년~1956년까지 매년 지구촌을 휩쓸었던 옛날 질환과 닮은꼴이 나타난 것이지 결코 새로운 질병은 아니라는 점이다. H1N1 type는 1918년부터 195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을 괴롭히다가 1957년 H2N2 type에 왕좌를 물려주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었다.(표1) 그런데 1977년에 H1N1 type이 또 나타나 보건 당국을 긴장시켰으나,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가벼운 형태의 독감으로 H3N2 type와 함께 우리주위에 맴 돌고 있다.(참고로 2009년 시판되는 계절형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의 성분은 H1N1 15micogram +H3N2 15micogram +

Type B 15micogram으로 3가지 독감 바이러스의 불활성화 항원 혼합액이 주성분이다, vaccines of trivalent defence) 신종인플루엔자는 계절형 H1N1 type과 다른 것으로 1918년 대유행기의 H1N1 type과 유사한 형태이다. 임상적 특징도 단기간에 전세계로 전파되어 (pandemic)에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혹자는 진화의 흐름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새로운 subtype의 등장과 발생 정도〉

Years	Subtype	Extent of Outbreak
1889-90	H2N8	Severe pandemic
1900-03	H3N8a	Moderate epidemic
1918-19	H1N1b (formerly HswN1)	Severe pandemic
1933-35	H1N1b (formerly H0N1)	Mild epidemic
1946-47	H1N1	Mild epidemic
1957-58	H2N2	Severe pandemic
1968-69	H3N2	Moderate pandemic
1977-78	H1N1	Mild pandemic

둘째, 신종인플루엔자가 어디에서 왔는가는 의문이다. 1918년과 같은 유전자를 가졌으므로 조류에서 돼지로 그리고 사람으로 감염 되었는데 의심했다. 결국 인간 사이에 돌던 H1N1 type가 원형과 1918년 형과 유사한 형태로 다시 변한 것이고 모양은 비슷하나 그만큼 초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야생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돼지독감이란 명칭이 있었으나 사람에서 돼지로의 감염은 있었으나 돼지에서 돼지나 돼지에서 사람으로의 감염은 없었다.

셋째, 독성의 문제인데 1918년 독감은 대단히 독성이 강해 그 사망률은 2.4에 달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독성은 낮아 사망률이 0.1%를 오르내리는 정도로 계절형 독감에 비해 오히려 경미하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나라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은 가벼운 환자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 심한 환자에서만 시행한 결과로 지나치게 높았다고 한다. 최근 유럽 학회나 동남아 여행을 하고 온 동료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종 독감에 대한 경계나 긴장감을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한국에 오거나 한국 뉴스를 보면 방역하느라 부산을 떨고 있어 발생도가 낮은 한국이 마치 오염지역으로 비쳐지는 오해를 초래한다고 한다. 따라서 보건당국도 계절 독감 수준으로 관리 수위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다른 상기도 감염과의 차별성 문제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인 경주의 개업 병원 원장님의 경험을 소개하면, 하루 30여건의 신종 독감 검사를 했는데 단 한건의 양성자도 없었다. 필자도 유사한 경험을 하는데 발열, 기침, 인후통의 3대 증상이 있으면 시행하는데 외국에 여행했거나 원어민 강사 몇몇을 제외하면 검사 양성율은 정말 보잘 것 없었다. 양성이면 타미플루를 주는 게 검사의 명분인데 노력에 비해 희생이 지나치게 컸다. 결국 신종독감보다 더 많은 상기도 감염환자가 존재하고 위험군이 아닌 한 환자에게 꼭 타미플루를 먹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과정은 외국에 다녀온 사람 소아 그리고 지역사회 성인 및 노인층으로 퍼지고, 외국과 접촉이 잦은 수도권 대도시 그리고 농촌으로 파급된다.

한국에서의 소아 감염율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소아의 경우 서로 다른 가족을 가진 학생들이 공교육이나 사교육을 통해 모이는

기회가 많고 위생 관리도 잘 안 되어 감염이 쉽고, 일단 감염되면 바이러스를 뿌리고 다니는 기간이 성인보다 길고 그 양도 많아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2009년 8월 말~9월초까지 36일간의 한국 전국 초등학교에서 감기로 결석한 숫자 통계에 의하면 6.3%로 2008년 같은 기간 1%에 비하면 뚜렷하게 높다. 학년별로 1학년 10.6%, 2학년 11.2%로 저학년에서 높고, 지역별로 서울 지역은 11.2%로 타 지역과 차별성이 뚜렷하다.

지난 여름동안 겨울이었던 남반구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의 90%정도가 신종인플루엔자였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분의 상당부분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영향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진료에 임하는 원장님께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소아층과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고, 진단율이 낮은 것은 아직 본격적인 감염의 파고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섯째, 조류독감과와의 재조합으로 그 독성이 급격히 증가 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러나 가능성과 현실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신종인플루엔자의 직격탄을 맞은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고 있는 2009년 호주의 사망통계를 보면 이전에 계절 독감으로 인한 사망환자는 연간 2천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1천명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지역 주민의 30% 정도가 항체를 가지면 인플루엔자의 전파가 차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앓은 감염 환자는 그때에 가서는 질병을 차단하는 방호벽으로 작용하게 되고 예방주사를 놓기 시작하면 그 방호벽은 보다 견고해 지게 된다. 또한 적절히 사용한다면 타미플루나 리렌자같은 항바이러스제제는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보건당국이 지시하더라도 그때 그때 지침에 맞추어 현장에서 뛰며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원장님들의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고 이를 잘 따라주는 환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맺음말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판단은 상당히 불완전하고 가변적이다. 요약하면 두려움에서 안도로 바뀔에 따라, 보다 낮고 적절한 진료지침으로의 변화로 이해된다.

상기와 같은 맥락에 따라 보건 당국의 지침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거점 병원에서만 취급하렷다가 일반개원의도 봐야한다고 하고, 꼭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하렷다가 검사 없이도 줄 수 있다고 하다가, 결국 계절 독감 수준으로 경계수준을 낮춘다고 한다.

신종인플루엔자와의 싸움은 우리나라 보건당국, 의료계, 제약회사 그리고 국민전체의 협조와 이해가 모여져 수행된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보건당국이 지시하더라도 그때그때 지침에 맞추어 현장에서 뛰며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원장님들의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고 이를 잘 따라주는 환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갈대 / 신경림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문학예술〉11호, 1956. 2

갈대꽃 / 유안진

지난 여름 동안
내 청춘이 마련한
한 줄기 강물

이별의 강 언덕에는
하 그리도
흔들어 찢는

손
그대의 흰 손

갈대꽃은 피었어라.

신경림 시인의 시 '갈대'는
요즘 같은 가을날 먼 길을 떠나 우연히
갈대를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이다.

신경림 시인이 1956년 문학예술에 추천되어
시인의 삶을 시작할때 쓴 시이다.

약관 20세에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 했는데
나는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있다.

처음 이 시를 읽으면서 나는 부끄럽게도
신경림이라는 시인이 여류시인인줄 알았다.

신경림의 갈대를 소리 내어 읽다 보면 문득
떠 오르는 시가 유안진 시인의 갈대꽃이다.

갈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어느듯
갈대는 지난 뜨겁던 여름날 내 청춘의 눈물
이 마련한 이별의 강 언덕에서 피어나고 손
그대의 흰 손으로 바뀌어 버린다.

유안진 시인은 1941년 경북 안동 출신으로
1965~1967년 박목월 선생의 추천으로 시인
으로 등단 하였다.

그의 '지란지교를 꿈꾸며'는 80년대 젊은이
들의 필독서였다. '비 가는 소리'도 한번
찾아서 읽어 보시길 권한다.



신 명 준
신명준외과의원(포항)

어머님 6주기에 부쳐



봄꽃을 유달리 좋아하시면서 봄꽃은 “花葉不相面”이라는 문자를 즐겨 사용하셨던 어머님 기일이 가까워 옵니다. 흥매로 부터 산수유, 개나리, 벚꽃등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한 6년 전 이즈음, 어머님은 저의 무르팍을 베고 ‘가래가 붙어 숨쉬기가 힘들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호흡기(Bird)는 달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시간후 88세를 일기로 영면하셨습니다.

생전에 효도해야지,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난 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머지 않는 곳에 살면서도 자주 전화도 못하였고, 자주 찾아 뵈지도 못하였고 쉬는 날이면 놀이다, 운동이다 저만 즐기고, 모시고 소풍간 것이 몇 손가락으로 헤아릴 정도이니 이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돌아가시기 마지막 일년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셔서 큰형수님 고생시킨다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해가 거듭할수록 그리운 마음이 얽어지는건 무슨 조화인지?

6.25 전해 불과 34세에 청상과부가 되어 지독한 가난과 주위의 곱잖은 눈총 설움을 삼키고 어린 오남매 잘 키워 주신 노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상에서 먼저 가신 아버님과 親, 外祖父母님과 즐거운 나날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3년전 어머님의 친정, 이 곳 구미에서 직장을 얻어 회사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새로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택호가 “구미댁”, “송정댁”인데, 이곳에 송정동이 있더군요.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구미초등학교 1년 후배라고 자랑을 많이 하셨죠.

늘상 온유하시고 배려하시고 이웃과 정을 내어, 작은 것도 나누어 가지는 훌륭한 품성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머님 하세하실 때 28세이던 딸 지민이는 문화 류씨와 결혼해서 안동에서 생활하고, 2명의 외손녀를 보았으며, 24세이던 진희는 지난 해 경주 최씨와 혼인하여 울산에서 신집 살림을 하고, 26세이던 중민이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승 기
웅진케미칼부속의원(구미)

저도 60을 넘겨 벌써 아픈 곳이 적지 않고, 하늘이 부르면 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모자 상봉이 이루어지면 어머님의 작은 가슴에 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은 어머님께서 그렇게 존경하셨던 할아버님 유고가 3년여의 산고 끝에 곧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니 기뻐해 주세요.

어머님 부디 편안한 밤 되세요.

2009년 4월 막내 올림.

클라이머 그레이

_ CLIMBER GRAY



서역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안과

선운사 새벽 산길에서 송고한 원초적 생명력 호흡

잠자리가 바뀌면 의례히 찾아오는 불면의 밤이 두려워 복용한 수면제 덕에 그래도 빨리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 설핏 들리는 세찬 비바람 소리는 또 다시 나를 어떤 악몽이나 가위눌림까지는 아니더라도 얽은 睡眠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선운사 예불 소리가 낮게 흐르는 안개처럼 내려와 그 야윈 睡眠을 조용히 흔들어 깨웠다.

나는 옆에 자고 있는 아내의 새벽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나 어둠 속에서 어제 챙겨둔 배낭을 메고 도둑고양이 모양 살며시 숙소를 빠져 나왔다.

숙소 문을 나서니 한 여름을 무색케 하는 시원한 바람과 동트기 전 짙은 어둠이 확 달려들었다. 어제 밤에 내린 소나기로 촉촉한 선운사길 위엔 새벽 별빛이 드문드문 스며들었다. 선운사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더 또렷해지는 새벽 예불 소리는 오히려 어둠을 더 짙고 고요하게 느끼게 했다. 이렇게 어둠과 고요 속에 걷는 것은 나에게 어떤 송고와 느낌의 미학을 일깨워 준다.



송고란 자신을 초월하는 뭔가를 마주했을 때 자신을 사로잡으며 감탄과 두려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아주 특이하고 드문 감정이다. 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강력한 엄숙함을 경험한다.

나는 선운사 새벽 산길을 걸으며 이런 송고한 원초적 생명력을 호흡하였다. 새벽 공기는 차고 향기롭고, 나무들은 팽팽한 생기로 가득 차 있고, 불어난 계곡물 소리는 고요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걷는 이 느낌은 주위의 이런 모든 사물들을 온전히 감상하고 받아들이는 위대한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느낌은 내가 있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사라진 다음에도 계속될 이 영원한 존재를 관통하는 총체적 사유를 가능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어떤 갈망 같기도 한 붉은 덩어리가 가슴속으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올 여름 휴가는 십 수년간 해왔던 설악산 하계 훈련 등반이나 외국 고산 등반을 포기하고 아내와 함께 여기 고창 선운사에 왔다.

그저께 열린 학회 참석차 전주에 온 김에 가까운 선운사에서 유숙하며 짧은 여름휴가를 보내기로 한 것이다. 지금쯤 산악회 회원들은 설악산 어느 봉우리나 계곡에서 비박을 하며 오늘의 또 다른 등반을 꿈꾸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어쩌면 어제 험난한 등반을 한 후 안식의 하산주술기운에 누군가가 먼저 부른 달마봉 산노래를 꿈속에서 다시 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달마봉의 달빛은 이 밤 나를 울리고 밤이 내린 계곡엔 눈물만이 흘러가죠.
물소리 새소리 풀밭에 소리
외로운 날 달려지만
떠난 사람 그리워서 잠 못 드는 이 밤은
나의 노래 실어갈 구름만이 벗어지죠.
산 사람 사랑은 산 같은 사랑
변함없이 주는 사랑
이 생명 진다해도 영원히 사랑하오.
그대만이 나의 사랑, 그대만이 나의 사랑

나는 2005년 유럽 알프스 몽블랑 등반을 다녀 온 후 무슨 이유인지 뚜렷이 모르게 산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 물론 그 다음에 동남아 최고봉인 키나발루도 갔다 오고, 또 일본 북알프스의 가장 난코스인 야리다케 능선 중주도 했지만, 어쩐지 내 자신이 서서히 산을 두려워하며 조금씩 피하는 느낌이었다. 그것은 내가 클라이머 그레이(climber gray)라 명명한 일종의 허망감 같은 것이 엷은 안개처럼 나를 감싸고 있는 분위기였다.

나는 전처럼 무조건 산을 오르고 싶다는, 그것도 아주 험난하고 불확실하며 고통과 불안이 가득 찬, 그런 산을 오르고 싶다는 열망이 내 안에서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조금씩 주말에 산악회 회원과 암벽이나 랫지 등반하는 것을 그만 두고, 가까운 팔공산이나 비슬산 등에서 홀로 트레킹하는 정도만으로 겨우 그 뜨거웠던 산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것은 내안에 뭔가 산과 멀어지게 하는 새로운 것이 자라나고 있다는 뜻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도대체 내 안에서 산을 밀어내는 새로운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 나는 유럽 알프스 최고봉을 등반하며, 또 그 정상 등정에서 실패하며, 자연의 그 거대함과 그에 비해서 한없이 나약한 내 자신의 한

계를 실감하며, 미처 겸손과 겸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일종의 허탈감과 허무감을 먼저 맛보았다. 그것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조리한 인간 실존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는 것과 흡사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오십을 훌쩍 넘긴 나이와 함께 밀려오는 피할 수 없는 체력의 한계와 늦게 자리한 대학 교수라는 익숙지 못한 새로운 책무에 충실하려는 강박관념이 이렇게 서서히 산에 대한 두려움을 빠르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이른 새벽 암흑과 고요속을 걸으며, 분명하지만 설명하기 힘든 슬픔 같기도 하고, 그리움 같기도 하고, 한편 같말 같기도 한 이 알곳은 심사는 결국 산에서 멀어지는 내 자신에 대한 애뜻한 연민 같은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내 스스로 반드시 산을 통해서만 치유해야하는 자신만의 생채기일 것이다.

어느 듯 선운사 계곡 깊숙이 들어서서서 마지막 가파른 오르막을 올라 능선에 서니 멀리 희미한 빛 같은 것이 퍼져왔다. 나는 크게 소리 치고 싶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험난한 산을 오르는 크라이머다!”

지리산 천왕봉



천왕봉 1915m, 12시간의 산행

8월 28일 금요일 저녁. 서둘러 짐을 꾸리고 나니 9시가 다 되었다. 몇 번을 베풀 끝에 오늘은 기어코 지리산을 가기로 작정을 하였다. 하지만 왠지 마음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낯선 곳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감을 주는 것 같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아내와 휴가 나온 아들도 간다기에 셋이서 출발을 하였다. 고 3 딸에게는 내일을 테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라고 당부하고 떠났다.

경남 거창에 도착하여 허름한 찜질방에서 자리에 누우니 12시가 다 되었다. 고양이 잠을 잔 후 새벽 4시에 일어나 산행기점인 중산리에 도착하니 6시가 조금 넘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하게 위쪽은 더 춥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준비한 버너로 물을 끓여 보온병에 넣고 6시 40분에 등반을 시작하였다.

산행기점 해발고도는 637M, 천왕봉 고도는 1915M, 가야할 거리는 5.4Km, 약 1270M를 5.4Km 걸어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조금 부담은 된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르기로 하기로 하였다.

처음은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바꾸어 생각하면 나중에 경사가 심하다는 이야긴데 은근히 걱정이 된다. 30분쯤 걸었는데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고 숨은 턱밑까지 차오른다. 최근 몸무게를 6Kg정도 줄인 역효과 때문인 것 같다.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 갔다. 1시간이 가까이 되어도 상태는 마찬가지였다. 보통 처음 30분 정도 지나면 적응이 되면서 호흡도 조금 안정이 되

는데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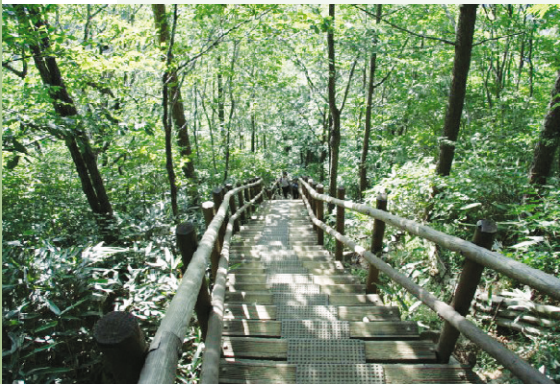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른 끝에 산행기점에서 약 1시간 만에 장터목 대피소와 로터리 대피소로 가는 갈림길에 도착하였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었



서 보 균

포항교도소 보건의료과(포항)

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조금씩 호전됨을 느끼며 약 1시간을 더 걸으니 8시 30분경에 로터리 대피소에 도착하였다. 집에 있었으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인데. 고도 1335M, 천왕봉까지는 아직 2Km 남았다고 이정표에 적혀있다. 법계사 뒤로 아득히 보이는 돌산이 천왕봉 같았다. 아내와 아들도 힘이 드는 표정이다. 대피소에는 간단한 과자류와 라면, 생수, 가스 등을 팔고 있었다. 혹시나 하여 라면 끓이려고 식수 외에 들고 온 2L의 물을 버리고 장터목대피소에서 사서 쓸까 하다가 지금까지 무겁게 들고 온 것이 억울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기로 하였다.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식수를 보충한 후 천왕봉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걸으니 나무가 조금씩 없어지고 돌길이 나타났





다. 피할 그늘도 없는 가운데 강렬한 햇볕 속에 마지막 힘을 내어 돌길을 오르니 정상이 시야에 들어왔다.

마침내 정상에 도착하니 11시 40분 이었다. 약 5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어느 회사에서 단체로 극기 훈련을 온 것 같았다. 구호가 난무하고 정상 표지석에는 사진을 찍는다고 난리들이다. 누가 표지석을 세웠는지 사진 찍기가 위험하였다. 혼잡한 가운데 겨우 기념촬영을 하고 다시 장터목 대피소를 향하여 출발을 하였다.

정상도 밟았으니 조금 여유를 갖고 걸었다. 좋은 경치가 나타나면 사진도 찍으면서 눈으로 풍광을 즐기면서 갔다. 고사목과 운해들이 만나서 가끔씩 만들어 내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산을 즐기는 사람만의 특권 같았다. 어슬렁거리면서 걷다보니 장터목대피소에 도착하니 1시 20분이 되었다.

라면을 삶기 위하여 밑에서부터 들고 간 생수를 끓이면서 주위를 보니 대부분 대피소에서 판매하는 생수를 사서 쓰거나 대피소 바로 아래에 있는 식수를 이용하고 있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을 한다더니 좀 더 철저히 알아보지 못한 불찰로 주인 잘못 만난 어깨만 고생한 것 같았다. 준비해간 햇반과 김치를 곁들여 먹는 라면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막힌 맛이다. 산위에서 이렇게 맛있는 만찬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산을 즐기는 사람만의 재미인 것 같았다.

천왕봉으로 가는 사람들, 지리산 일주를 하려고 세석대피소로 가는 사람들, 우리처럼 중산리로 하산하려는 사람들 등이 섞여서 조금은 부산한 가운데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한 잔의 커피를 타서 마시면서 주위를 돌아다니 보니 이곳에 옛날 장이 섰던 곳이라는 안내판이 보였다. 해발 1655M에 장이 섰다니 놀라움이 앞섰다. 무거운 짐을 들고 이곳을 오르내렸을 선인들의 고달픈 삶을 생각하니 괜히 가슴이 아리며 오늘날 풍요로운 우리의 삶에 무언가 모르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장터목대피소를 떠나면

서 시간을 보니 2시 20분이었다. 오르막이 심하였으니 내리막도 길도 쉬울 리가 없었다. 끝없는 돌길을 내려오는데 무릎보호대를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여 무릎이 아프다고 아내는 자꾸만 뒤로 쳐졌다. 무수히 쉬었다 내려오기를 반복하여 무사히 처음 출발한 곳에 도착하니 오후 6시 40분 이었다. 출발할 때가 오전 6시 40분 이었으니 정확히 12시간이 걸렸다. 하산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였으나 결코 만만치 않은 코스였다. 겨울철에는 서두르지 않으면 하산 중에 날이 어두워 질 우려가 많을 것 같았다.

대강 짐을 정리하고 중산리를 출발하여 휴게소에서 저녁을 해결하고 집에 도착하니 11시가 되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로움 속에 지난 하루의 일정을 회상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스쿠바다이빙

_ SCUBA DIVING



자연에 대한 경외심 가지는 마인드 필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원장님의 소개로 우연히 시작한 스쿠바다이빙 취미활동이 해가 가면서 점점 빠져들게 하는 매력덩어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기만 하던 물속이 어느덧 푸근한 안방처럼 느껴지는 건 세월이 흘렀다는 말일까요?

8년전 시작할때만 해도 그냥 달랑 호흡기 하나에 의존해서 숨쉬다가 난관에 부딪히면 헉헉대다가 사고날 수 있는 위험한 스포츠 활동으로만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물속에서 동료와 헤어지고나면 웬지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하고 시커먼 물체가 다가오면 깜짝 놀라기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와서는 내가 이걸 왜 하지? 하고 자신에게 되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하고는 소위 말하는 궁합이 맞는지 저는 그러면서도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고 다이빙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려고 업그레이드 교육을 받고 하나씩 하나씩 다이빙에 대한 의문을 풀어 나가다 보니 어느덧 나하고는 전혀 상관 없을 것 같아 보이던 다이빙 강사가 되고 일반적인 레크리에이션다이빙을 넘어선 테크니컬 다이빙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완전폐쇄식 재호흡기 MOD4 다이버가 되었습니다. 다이빙이론은 지금도 발전해 나가는 살아있는 학문이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어쩌면 꼭 필요한 학문 중의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라고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소중한 무언가를 얻으려면 욕심이겠지요. 노력 없는 성취가 가능할까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해답은 하나라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이빙은 체력과 정신력과 분석능력을 요구하는 난이도가 높은 스포츠이지만 모자라는 점을 하나씩 보충해 나가면서 동료와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협력관계를 기본적인 덕목으로 보는 스포츠입니다. 어떤 스포츠도 이



김 석 곤
인선학문외과의원(안동)

렇게 경쟁 없는 우호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칠흑같이 캄캄한 한밤중에 수중 라이트에 의존해서 하는 민물 다이빙중에 만나는 수중 생물들은 경이 그 자체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언젠가 한번은 작고 화려한 민물새우가 어쩌나 예쁘던지 수중카메라를 들고오지 않은 걸 후회하면서 10분이상 한자리에서 관찰하며 머물러있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바다속에서 만난 작은 생물들도 다이버에겐 충분히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수중 생태계를 방해하지 않고 일부가 되려면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

는 마인드와 다이빙 스킬은 물론 수중생태계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물고기가 왜 그곳에 있고, 왜 그런 생김새, 왜 그런 행동을 할까 궁금하다면 당연히 해답을 얻기위해 책을 뒤적이고 공부를 해야 하듯이 다이빙에 대한 궁금증도 업그레이드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서 차츰차츰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경상북도 의사사회지에 낼 원고를 부탁 받고 잠시 망설여지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이빙에 대해 할말은 많은데 워낙에 줄필이고 아직도 배워야 할 다이빙 분야가 많이 있기에 어떻게 해야할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다이빙은 분야가 얼마나 많은지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는 정도이기에 평생을 다이빙해도 다하지 못하는 스페셜티 다이빙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스포츠 다이버 단계는 대개 오픈워터다이버부터 해서 어드밴스드다이버, 스페셜티다이버, 레스큐다이버, 마스타다이버, 다이브마스터, 보조강사, 강사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 테크니컬 다이버는 나이트룩스다이버, 어드밴스드나이트룩스다이버, 감압절차다이버, 익스텐디드 레인지다이버, 혼합기체다이버, 어드밴스드 혼합기체다이버가 있고, 재호흡기 다이빙은 여기에 더해서 MOD1, MOD2, MOD3, MOD4 단계가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스페셜티 다이빙중에는 일반적인 스페셜티 다이빙외에도 대심도감압다이빙 아이스다이빙 난파선다이빙 동굴다이빙 등등 헤아릴수 없이 많은 스페셜티다이빙 종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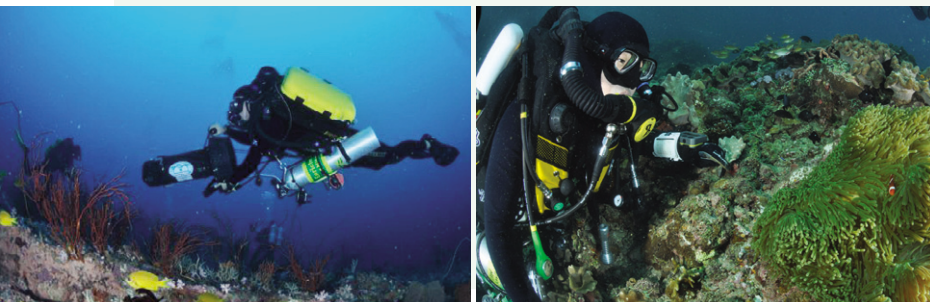
제가 가진 Evolution plus 완전 폐쇄식 재호흡기를 소개해 드리면 2005년 Apdiving에서 소개된 재호흡기로서 호흡기체 재사용으로 인한 호흡기체 양적필요성의 감소 및 수중체류시간의 증가, 일정한 산소부분압유지로 인한 질소마취감소 및 수중감압 필요성의 현저한 감소, 기타 인체생리학적으로 최적인 컨디션유지 등에 도움을 주고자 개발된 장치입니다. 이산화탄소 제거를 위해 전신 마취시에 쓰는 것과 같은 소다라임을 이용해서 일반적인 개방식 개방식 호흡기가 지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다이빙장비입니다.

다이버가 수중에서 호흡기체로 산소를 쓴다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맞다” 하고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둘다 맞는 말입니다. 스포



츠다이빙은 수심 30미터내외정도에서 깊이를 제한하고 테크니컬다이빙은 대개 100미터 내외의 수심까지 다이빙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체의 차이때문에 수심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다이빙은 공기로만 하는 다이빙이기에 공기성분중에 있는 약 79%의 질소로 인해 생기는 질소마취위험성 때문에 수심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것이고 테크니컬다이빙은 질소로 인한 수심제한은 혼합기체 사용으로(헬륨과 산소와 질소의 배합) 어느정도 해결되나 산소로 인한 산소중독증때문에 깊이를 제한하나 어떻게 보면 테크니컬다이빙의 제한수심은 진행중인 수심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물음에 산소는 테크니컬다이빙중에 꼭 필요한 기체이니, 보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는 3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머문 테크니컬다이버가 있고 제가 보기엔 아마 앞으로 깨지기를 기다리는 수심이니까 최고라는 말을 쓰기보다 인간의 한계가 얼마인가?라고 묻는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흔히 고산병은 공기가 희박해서 생긴다 라고 말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산소부분압이 저하되어 생기 병이고 반대로 테크니컬 대심도 다이빙에서는 산소부분압의 증가로 인해 생기는 산소중독증상, 기체필요량의 증가로 인한 바닥체류시간제한, 대심도에 따른 감압시간증가등이 문제가 됩니다.

다이빙 이론의 예를 들자면 산소노출한계시간이 있는데 산소부분압 1.6에서 1회 산소노출시간한계가 45분정도이고 그이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진행중인 이론이지만) 산소부분압과 노출시간 모두가 문제가 됩니다. 수심10미터 단위로 하강하면 주변기압이 1기압 상승하므로 수심이 깊어질수록 기체소모량이 높아지고 질소분압상승 산소분압상승 등등 위험도가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얕은 수심이 될 위험한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피가 10미터단위로 1/2씩 줄어들므로 Dalton의 법칙에 따라 10미터에서는 1/2 20미터에서는 1/3 30미터에서는 1/4이런식으로 점점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을 것 같은 낮은 수심에서 부피변화가 가장 심하므로 많은 다이빙사고가 오히려 얕은 수심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이빙의 안전은 고도의 경각심과 꾸준한 다이빙스킬향상, 정기적인 업그레이드교육 및 다이빙 지식향상 등을 통한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창이 커질수록 더 넓은 시야가 나오는 건 당연한 말이겠지요. 워낙 넓은 범위의 다이빙단계라 최근에 다녀온 해외다이빙 중에 교육받은 MOD3, MOD4 재호흡기 다이버교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7일간의 다이빙일정으로 진행된 교육기간중에 첫날 55미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101미터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는데 첫날 55미터 목표지점까지의 도달은 하강시간 5분에 바닥체류 약 10분간 후에 상승후 감압시간은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는데 거의 45분간의 재호흡

기 혼합기체다이빙이었습니다.

평소 약 50미터 내외의 수심을 다이빙하는 MOD2 다이버였으므로 무척 편안한 다이빙이었고 바닥 수심에서 질소분압상승으로 인한 질소마취 현상없이 헬륨혼합기체 사용으로 인한 명료한 의식속에 수중생물을 관찰하고 수중에서 솟아난 기압괴석의 절경과 수중생물 관찰을 즐길수 있었습니다.

2미터가 넘어 보이는 바다거북이가 근처에서 한가로이 유영하고 크고 작은 물고기를 관찰하노라면 잠시 더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 계획된 감압과 엄격한 다이빙 스케줄을 지켜야 하기에 다음을 기약하고 상승하였습니다.

상승 중에도 수중라이트 빛을 받은 수중생태계를 보노라면 파란 물감으로 둘러싸인 수중경관에서 하이라이트된 컬러풀한 관찰대상이 마치 영화에서 온통 흑백의 장면에서 유독 한 부분만이 천연색으로 보이는 장면처럼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다이빙 후 동료들과 각자 본 경관과 다이빙중에 격은 에피소드를 담소하고 있노라면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70미터 다이빙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 햇살을 듬뿍 받은 바다를 뒤로하고 목표 다이빙포인트를 향해 방카보트로 이동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는 구령에 따라 일제히 물속으로 뒤구르 기입수기술로 입수후 곧장 70미터 목표수심을 향해 하강했고 몽키릭

바깥바다에서 침몰후 거의 뼈대만 남은 선박을 천천히 돌아보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을 관찰할수 있었습니다.

완만한 경사의 상승 경사면을 따라 여유있는 상승을 하고나니 어느덧 오전이 지나가고 오후에는 수심 35미터 내외의 깊이에 위치한 캐년 포인트에서 편다이빙을 즐겼습니다. 조류를 따라 핀키크(오리발차기)없이 그룹으로 유명한 조류(潮流)다이빙으로 유명한 포인트이지만 시간대를 잘못 맞추어서인지 거센 조류는 없었고 평소 유심히 보지 못했던 이름모를 다양각색의 산호들과 곰치 말미잘 해면 등등의 바다생태를 천천히 관찰 후 상승할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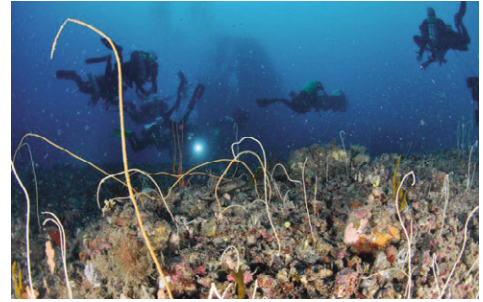
저녁마다 있는 다이빙 교육 후에 다음날 80미터 다이빙은 베르데섬에 위치한 산아가피토 포인트였고 한번도 가보지 못한 장소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상쇄할 정도로 깨끗하고 파란 수중시야에 감동했고 한번 더 가고싶어 그 다음날에도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포인트는 같은 장소지만 다른 위치에 있었고 말로만 듣던 아름다운 풍경에 내가 정말 90미터에 왔는 지도 모를 정도였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그야말로 한번에 날려보낸 날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상어가 항상 있는 샤크케이브로 편다이빙이 진행되었고 케이브라하기엔 약 5미터정도의 좁고 움푹파인 홈에 있는 화이트팁상어를 관찰하고 약 30미터의 수심에서 천천히 경사를 따라 다이빙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그러저럭 다이빙을 했었고 꿈같은 5일이 지나고나니 어느덧 pinnacle diving(자신의 최고수심 다이빙)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고수심을 경험해보는 기대감에 아침일찍 일어나 꼼꼼히 장비정비를 한 후에 아닐라오에 위치한 커비스락 포인트로 수십명의 다이빙회원과 함께 방카보트에 나누어 타고 입수후에 하강했습니다. 하강하는 중에 제가 속한 어드밴스드혼합기체 재호흡기팀에서는 볼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호흡버블을 내뿜는 개방식어드밴스드혼합기체 дай버들로 인해 마치 산불이 나서 거대한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장관이 잉크빛 바다속에서 연출하는 드라마를 볼수 있었습니다.

사실 개방식혼합기체다이버들은 호흡기체에 포함된 값비싼 헬륨을 숨쉴때마다 내버리는 것이므로 수십명의 개방식어드밴스드 혼합기체 다이버가 만들어내는 진짜 보기힘든 광경을 우리들은 공짜로 즐기는 셈이었습니다.

바닥수심 80미터 정도에서 완만한 경사로 이어져서 어느덧 101미터 수심에 도달한 우리들은 주변을 압도하는 커비스락(Kerby' Rock)이라는 바다속의 장엄한 봉우리를 마치 산아래에서 올라다 보는 것처럼 바라 볼수 있었고 왜 이포인트가 테크니컬다이버들의 명소인가를 깨닫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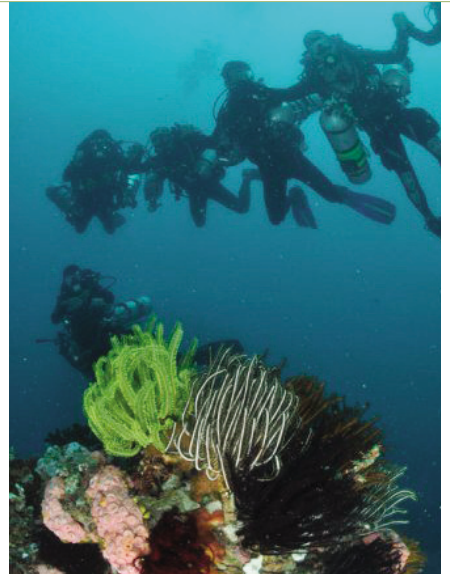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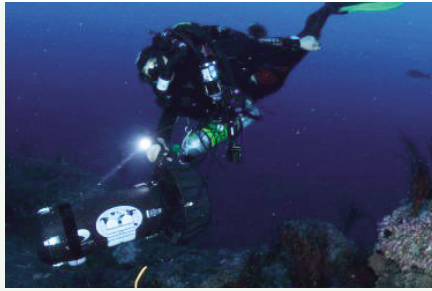
되었습니다.

트라이믹스 T/X 8/62 diluent 호흡기체를 이용한 pinnacle diving후에 재호흡기 컴퓨터의 지시에 따라 우리 팀은 분당 10미터의 상승을 하고 난 후 약 50미터 수심에서 감압이 시작되었는데 분당 5미터간격으로 수심20미터까지는 상승하고 그 이후 지루한 수중감압이 총 50분정도의 시간 속에 흘러갔습니다.

마지막 6미터 감압동안은 빠른 조류 탓인지 깨끗한 시야속에서 무수히 많은 물고기와 형형색색의 산호 말미잘등이 그야말로 내쇼날 지오그라픽 영화처럼 환상적인 분위기속에서 pinnacle diving을 축하해주는 것인양 우리들을 환영해주었습니다.

이번 다이빙은 교육을 겸한 다이빙이었고 수많은 숙련된 어드밴스드 혼합기체다이버가 참여한 관계로 한번의 오차도 없이 매끄러운 다이빙이 되었고 다이빙 후에 가진 축하행사때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다이빙 버디인 대구 DECOSTOP 이성오 TDI/SDI instructor trainer에게도 이 글을 빌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외과를 선택한후 전문의과정, 봉직의과정, 개원의과정을 거치는 중에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았지만 좀 특이하다 싶을 정도로 남들이 여기는 테크니컬 다이빙을 취미로 하다보니 생활의 활력이 생기고 좀더 젊어지는 마인드와 여유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담는데 까지 계속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다이빙 의학에도 도



전해 볼 생각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의사회원 중에서도 현재 같은 다이빙 취미를 가진 다이버가 많을 줄로 압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중촬영도 같이 해보고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다이빙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다이빙을 접해보지 못하신 의사회원 여러분에게도 도전해 볼 만한 취미 생활로 스쿠바다이빙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마이웨이



'가을의 전설' 을 만들러 춘천에 갔다.

완전한 '비움' 이후 상쾌함과 공허감이 상존한다.

육체와 정신이 조화 되지 않던 혼동의 순간들과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의 시간 속에서

내 몸의 '에너지' 를 모두 빼앗겨 버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나는 그 나른함을 즐기고 있다

또 다시 채우고 비우고를 반복하겠지
그리고 그 완벽한 '카타르시스' 를 위하여...

2007년 시월의 마지막 날...

저는 대구 칠곡에 살고 있고, 구미 인동에 개원한지 10년 됐습니다.

오늘은 2009년 10월 7일... 우연찮게 저의 양력 생일입니다.

엊그제 까지만 해도 뜨겁던 햇살이 어떻게 오늘 갑자기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계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듯 부지불식간에 들어닥친 이 가을에 잠시 당황합니다.

진료실 창문 너머 먼 산 파란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다 지난 가을날의 아득한 기억들로 작은 미소가 입가로 번집니다.

5년전 시월 이맘때... 그 날이 그 날 같던 개원 5년차... 일요일만 바라보고 사는 평범한 개원의 생활... 주말이면 자주 어울려 풀밭에서 '자치기' 하며 지내던 중 그날은 아쉽게 약속이 없는... 막연한 일요일 아침입니다. 물 한병과 먹다 남은 피자 몇 조각을 아들의 작은 배낭에 넣고 어깨에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버스를 타고 '동명' 에 내려 팔공산 '동봉' 을 향해 무작정 길을 나섭니다... 혼자라서 조금 외롭지만 괜찮습니다... 파란 하늘과 알록달록 단풍들과 친구하며 놀망놀망 걸어갑니다... 길가로 빠져나온 성근 포도 몇 알을 따 먹기도 하면서... 그런데 생각보다 길이 멍니다... 한 두시간 걸으면 다다를 줄 알았는데 동봉아래 수태



장 태 영
동산제통의원(구미)

골까지 무려 4시간이 더 걸립니다... 수태골에 다달아 점심으로 어묵 몇개 사먹고 동봉을 향해 올라가지만... 벌써 피곤합니다... 바위 뒤에서 잠깐 눈도 부치고 쉬며 두 시간 더 걸려 동봉에 올라서니 3시가 좀 넘습니다.

정상에서 간식 먹으면서 나름 여유있게 팔공산 조망을 즐기고, 염불암 쪽으로 해서 동화사로 하산 하려고 발길을 옮깁니다... 4시가 훌쩍 넘어가니 산 능선에 인적이 드물고, 산속이 어두워 지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산길 내리막... 계곡 따라 얼마쯤 내려갔는지 벌써 해가 '뚝' 떨어지고 캄캄합니다... 후레쉬도 없고... 어슴푸레 달빛에 비치는 바위가 마치 산짐승 같아 보이면서 달려들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가파른 길... 무릎도 아파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물소리 들리는 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는데 철조망 넘어 큰 기와집이 언뜻 보입니다... 오~! 드디어 '동화사' 인가 봅니다... 쪽문이 있어 넘어 들어가니... 아닙니다... 한참을 비껴난 '청소년수련원' 입니다... '후우~' 우짜던가 살았습니다.

아스팔트길로 '절뚝절뚝' 한참을 내려가 버스정류장에 다다르니 8시가 넘습니다... 배가 고파 신암동 어디에 내려 짬뽕 한 그릇 사먹고 집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습니다... 혼자 팔공산 간다고 나간 남편이 밤늦도록 연락이 되지 않아 119에 '조난신고' 했답니다... 산에서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 되었군요... 혼이 빠져 전화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보~미안"... 집사람은 그 후로 저보고 '무대뽕, 길치' 라 부릅니다... 그리고 며칠간은 무릎이 아프고, 오금이 당겨서 집에서는 앉은뱅이 생활 했습니다... 출근은 간신히 하구요...쩍~

그 날 이후 가을은 깊어가고 자치기도 시들해 지던 차... 산에 대한 여운이 남아 친구들과 근처 산을 좀 다녀 봅니다... 가을 매화산, 화왕산... 겨울 가지산, 덕유산... 그리고, 그리운(?) 팔공산을 몇 번 더... 봄이 되어가니 걷는게 조금 익숙해 집니다... '발맛' 도 조금 느끼고요... 이제 좀 더 멀리 큰 산도 가보고 싶습니다... 남한에서 제일 높다는 지리산 천왕봉, 고등학교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가는 바람에 가보지 못한 설악산도...

이즈음 산행이 한창 '봄' 이 었던가 봅니다... 규칙적으로 꾸준하고, 안전하게 산을 가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대구 K2 산악회와 연결되어 백두대간을 시작 해 보기로 했습니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嶺) "산은 물을 넘지 못하고, 물은 산을 건너지 않는다"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계곡이나 강을 건너지 않고 오직 산줄기만으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등뼈, 백두대간(白頭大幹) 1,625Km입니다.

경남산청 지리산을 시작으로 덕유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수많은 고개와 산봉우리를 넘어가면 설악산 진부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쪽 백두대간 785Km 입니다... 40여 구간으로 나누어 한 달에 두 번씩 가면 2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2005년 4월 3일 대원 80여명은 백두대간 종주에 나뉘는 자부심과

의미를 부여하며, 비장한 각오로 대간 첫 봉우리 산청 응석봉에 첫발을 디딤니다... 뺨을 때리는 사락눈을 맞으며 왕등재를 지나고... 3구간째 대원사에서 새재를 올라 힘겹게 중봉을 거쳐 드디어 '지리산천왕봉'에 올라서 봅니다... 아~! 여기에 단 세상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천왕봉 구름바다, 벼랑끝 구상나무, 제석봉 고사목... 오월 철쭉의 지리산 주능선 100 여리를 오르내리며 봄의 향연을 온몸으로 만끽 합니다.

꽃놀이도 잠시... 남원을 지나면서 비가 잦은 후덥지근한 날씨는 산죽으로 우거진 야산을 헤쳐 나갈 때 진을 다 뺏습니다.

여름 끝 무렵에 덕유산입구 육십령 날머리를 조금 앞두고 동료들 보다 먼저 가서 씻고 쉬겠다는 심사로 혼자 길을 나서다가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몹시 당혹스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뒤 돌아서서 다시 올라가기는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차소리 들리는 쪽을 따라 내려가며 개울을 지나가다 이끼를 밟아 '미끄덩' 뒤로 넘어지면서 왼 팔꿈치를 개울바닥에 크게 부딪치며 내동명이 쳐집니다. 전 팔이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금방 부풀어 오르는데 몸을 추스리고 피지컬(?)해보니 다행이 뼈는 괜찮아 보입니다... 아픈

팔을 부여잡고 산을 헤메다 어느 언덕위에 올라섰는데 고속도로 위로 차는 생생 달리고 지도를 펴 놔도 도통 오리엔테이션이 안됩니다... 아래 멀리 보이는 마을로 내려가 동네 주민에게 부탁해서 택시 불러 육십령에 도착합니다... 동료대원들이 걱정해 주는데... 고맙고, 민망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반성해 봅니다... ‘아는체 나서지 말자’ ... ‘개울가에서 조심하자’ ...

며칠 지나니 통증도 가시고 그 일은 잊어가고 또다시 산에 갑니다... 가을 덕유산도 참 아름답습니다... 꽤나 큰 산이고 바위산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늦가을... 덕유산 끝자락, 빼재를 출발해서 대덕산에서 덕산재로 가파른 길... 스틱을 짚고 내려가는데도 무릎이 아파옵니다... 새로 산 등산화와 배낭이 무거웠나 봅니다. 덕산재에 내려서니 지쳐서 더 걷기가 힘듭니다. 김천 부항령까지 4키로나 남겨놓고... 길가에 퍼질러 앉아 있는데... 뒤 따르던 대장이 내 배낭 내용물을 자기배낭에 옮겨 지고 앞서 갑니다... 다시 몸을 추스리고 걸어 보지만 여전히 다리가 아픕니다... 먼저 간 대원이 마중을 나와 배낭도 대신 메어줍니다... 12시간 걸려 꼴찌로 들어간 저 때문에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날 부터 피우던 담배도 끊고 따로 운동도 좀하면서 몸 관리에 신경씁니다... 그 후론 나름 잘 따라 다닙니다... 추풍령을 지나면서 겨울 설산으로의 긴 여행을 떠납니다... 신선대, 문장대 눈 내린 속리산의 비경에 흠뻑 취하고, 마루금 눈꽃터널에서는 나무를 흔들며 눈을 맞으면서 개구장이라도 되어봅니다... 얼어붙은 조항산, 대야산의 형형색색 기암괴석에 감탄사를 연발하며 겁에 질렸다가는 금방 신나게 암릉을 넘어 다니고... 조령산 문경새재, 하늘재, 포암산으로 이어지는 환상의 능선으로 발길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느듯 계절은 한바퀴 궤적을 돌아 또 다시 봄의 전령들이 길섶 돌틈 사이에 하얀 뽕 마디에 연녹으로 움트고 있습니다... 완연한 봄 5월... 캄캄한 새벽 죽령고개에서 연화봉 천문대를 지나 동트는 소백산 비로봉에 올라섭니다... 아래에서 치받고 올라오는 힘찬 바람에 구름이 솟구쳐 산위로 날라 다니는 자연의 장쾌한 모습도 봅니다... 초여름을 지나면서 민족의 영산 태백산 천제단에 올라 무사종주도 기원하고... 어두운 만항재길을 돌아 넘어 어스름 새벽 함백산에서 맞이하는 일출은 발아래 주목군락과 저멀리 동해바다가 보일듯 잡힐듯 탁트인 조망과 어울려 장관을 연출합니다... 환선굴위로 지나는 덕항산을 편하게 넘고... 드디어 34키로나 되는 두타, 청옥산을 넘어가는 땃재 - 백봉령 구간... 그날은 하루종일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쉬었다 갈래도 추워서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을 14시간동안... 서서 밥먹는 시간 5분만 빼고... 그 시간 집에서는 ‘폭우로 강원도 산간에 조난사고 났다’는 뉴스

를 접하고 몸시 걱정한 날이었습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해가 내리쬐는 한여름은 산속도 덥습니다... 대관령으로 넘어가는 능경봉 팍팍하게 오르는데 한줄기 반가운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단비를 맞으며 힘차게 넘어서고... 드넓은 초원위에 호젓한 나무 한그루... 동화속 그림 같은 오대산 소황병산을 소풍가듯 지나고... 늦여름 진고개 새벽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과 은하수에 깜짝 놀라 줄리는 눈 부비며 한참을 올려다 봅니다... 마치 우유를 뿌려 놓은 듯한 - 영어로 ‘밀키웨이’라 부르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구룡령, 조침령을 넘어... 점봉산 망대암산에 한달음에 뛰어올라 저기 저 아래 한계령 고개위에 큰 달력에 그려있는 ‘파르파탈’ 설악아가씨의 자태를 넋 놓고 감상합니다.

“저 산은 내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짙은 개국 침침산중 저 산은 내게 앞으라 앞어버리라 하교



내 가슴을 쓸어 버리네
 아 그러나 한 줄기 바람처럼 살다 가고파
 이 산 저 산 눈물 구름 몰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
 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양희은의 ‘한계령’ 노래를 흥얼 거리며 내려갑니다... 이제 대간도 설악산 두 구간만 남겨 놓았습니다.

시월의 설악은 선홍의 빛깔로 물들어 갑니다... 다시 한계령에서 새벽을 내달려 대청봉을 오르고, 죽음의 계곡을 따라 희운각에 내려서 잠시 허기를 면하고, 긴 여정에 지친 대간꾼들 천불동 골짜기에 하나 둘 숨어듭니다. 양폭산장에 짐승처럼 웅크려 선잠으로 지새우고, 밤길 풀벌레들 미안스레 깨우며 희운각을 다시 올라, 속초항 바다내음이 구름에 실려오는 설악의 공룡능선을 한나절 희롱하고, 황철봉 너설길을 어렵사리 내려오니 부슬부슬 가을비 밤안개가 미시령을 휘감아 둥니다.

2006년 10월 29일... 마지막 한구간... 설레임, 희망, 고통, 좌절감, 외로움, 즐거움, 환희, 아쉬움이란 단어들을 떠올리며 지나온 백두대간을 되뇌어 봅니다. ‘끝남’이 못내 아쉬워 진부령을 조금 앞두고 ‘마산’ 아래 알프스콘도 뒷마당 풀밭에 큰대자로 드러누워 푸른 가을하늘을 쳐다보다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축하하러 마중 나온 많은 선후배 기수들이 양쪽에서 도열하여 스틱을 치켜세워 만든 터널을 지날때는 울컥한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43구간의 백두대간 종산제를 지내고 대원들 모두 진부령 고갯마루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는 북쪽을 바라보며 “남북이 하나 되는 날 다시 이곳에 모여 금수강산을 노래하며 미완의 백두대간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쓸쓸한 발걸음을 돌립니다.

처음 출발한 80여 대원중 4명이 ‘개근완주’ 했는데... 저도 포함됩니다... 무탈하게 도와준 주위 분들과 가족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출근길 집을 나서면 팔공산과 유학산, 금오산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젠 그 산들이 살갑게 다가옵니다.

꿈길을 걷다온 듯 아득한 시간들은 기억 저편 한 모퉁이에 그리움으로 남아있고, 갈 길 잃은 어색한 날들이 오랫동안 반복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하게 느껴지던 일상이 지루해 집니다. ‘자극 중독’ 인가요?... 목표가 없는 생활은 게을러지고 또한 ‘설레임’이 없습니다.

다시 맞이한 봄날에 또다시 의도적으로 ‘우연한 기회’를 만들어봅니다. 2007년 4월15일 대구마라톤 10키로 달리기에 친구 따라 참가 했다

가... 풀코스를 1등으로 들어오는 - 마치 ‘말’처럼 달리는 - 잘 빠진 몸매의 한 사나이를 눈앞에서 목격하고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릴때 ‘이소룡영화’를 보고 나올 때 처럼...

또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나도 멋진 근육을 만들어, 폼 나게 한번 달려보자... 달리기 ‘성인병’ 예방에 좋고, 더군다나 ‘암’도 예방된다는데... 그날 이후 ‘가을의 전설’이라는 타이틀의 ‘춘천마라톤’을 목표로 헬스클럽도 다니고, 6개월 프로그램에 따라 런닝연습을 하면서 포항해변, 영덕고래불, 김해숲길, 창녕부곡, 풍기인삼, 경산마라톤 등 지역에서 열리는 ‘하프코스 대회’에 참가하여 낯선 곳을 달려도 보고 축제에도 참가하는 색다른 체험을 합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뛰어 끝인지점을 통과하면 그 성취감과 해방감은 어느 것보다 비할 수 없습니다. 덤으로 스트레소도 확 풀리고 밤에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물과 밥이란 것도 새삼 느껴봅니다.

여름을 지나니 금방 대회가 임박합니다... 생각만큼 기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10월28일 드디어 ‘가을의 전설’을 만드는 날... 처음 참가하는 풀코스 마라톤에 설레임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춘천 공설운동장으로 들어섭니다... 문명의 모든 허물을 벗어놓고 원시의 모습을 한 2만여 달리미들이 비장한 각오로 운집해 있습

니다. 10시에 축포와 함께 엘리트 선수들이 먼저 출발하고 뒤따라 실력에 맞는 위치에서 한무리 달림이들과 함께 먼 길을 나섭니다.

초반 오르막에서 숨을 고르고, 가파른 내리막 끝닿는 곳에 붉게 물든 ‘삼악산’이 마중나와 응원합니다. 주자들 환호하며 의암댐을 넘습니다. 오른쪽 의암호 호반을 끼고 달려갑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생명의 터전인 들, 생명의 귀착지인 산의 완벽한 조화의 의암호를 한바퀴 돌아가는 환상의 곡선코스... 20여 키로 조금 넘어 지루한 오르막길을 조심스레 올라... 춘천댐을 힘겹게 돌아 넘고 30여키로에 접어들니 몸속의 에너지가 고갈 되어 가는 듯 다리가 천근만근입니다... 걷다 뛰다를 반복하며 소양2교를 넘어 오른쪽으로 돌아오니 의암호의 ‘소양강처녀 동상’이 언뜻 눈에 들어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직선도로가 펼쳐집니다. 신나게 두드리는 북소리 응원은 잠시 고통을 잊게 할 뿐 오히려 예민해진 신경을 더 자극합니다. 분명 달리건만 옆에서 걷는 사람과 속도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40키로 마지막 급수대를 지나니 4시간이 넘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으로 그냥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연도의 시민들 “다왔어요” 외친다... “다왔어요?”... 완료형이 분명하지만 내 앞에는 지나온 거리보다 더 먼 거리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2키로가 이리도 멀 줄이야... 낮선 도심골목을 허우적거리며 돌아 나오니 나타나지 않을 것만 같던 눈에 익은 운동장이 드디어 시야에 들어옵니다. 응원 하는 사람들의 환호와 팽과리 소리에 마지막 힘을 내봅니다. 입구를 들어서니 장내에서 귀에 익은 음악이 잔잔하게 울려 퍼집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 my way ~”...

마지막 한 바퀴 트랙을 도는 동안 울컥,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려고 모자를 꼭 눌러쓰고 골인지점을 통과합니다... 누군가가 내 목에 메달을 걸어줍니다.

‘인생은 마라톤’ 이라고 하던데... 인생 너무 힘듭니다...ㅎ 내심 4시간 안에 들어오길 기대했는데... 재능에 비해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나 봅니다.

마라톤!... 결코 노력을 넘어선 결실을 보장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 오롯이 의지하여 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무시한채 혼자만의 레이스도 반기지 않으며, 과도한 욕심은 필연적인 후회를 낳고 지나친 나태는 목표를 멀어지게 합니다. 노력만큼, 능력만큼, 겸손하게, 약간은 여유롭게, 잘 짜여진 계획으로, 목표에 대한 열정으로, 굴하지 않는 의지와

신념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질 거리를 똑 같은 조건에서, 때로는 경쟁하며 때로는 의지하며, 때로는 앞서가며 때로는 따라가며, 그렇게... 인생처럼...

같이 온 친구들과 ‘춘천닭갈비’에 몇 순배의 술잔으로 ‘허탈’을 달래고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식당을 나서는데 을씨년스런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저기 어두워지는 길가에 출발한지 7시간을 훌쩍 넘긴 이시간에 한명의 달림이가 비를 맞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토록 포기하지 않고 뛰게 만들었는지...

큰 숙제를 또 하나 마치고 오랫동안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간 탈 때 식구들 데리고 와서 꼭 보여주고 싶었던 ‘속리산 설경’을 다시 찾아 ‘뽕득뽕득’ 원 없이 눈을 뱉어도 보았습니다.

이 후 여러 마라톤대회에 참가도 하고, 가끔 지리산, 설악산도 찾아가 봅니다... 팔공산도... 동네 뒷산 함지산은 밥 먹듯이 갑니다.

올해는 아들이 수험생입니다... 무사히 ‘수능’을 치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25일에 또다시 ‘가을의 전설’을 만들러 춘천갑니다... 몇 개월간 나름대로 준비해서 출전하는데 4시간 안에 들면 좋겠습니다... 올 겨울에는 근력운동 열심히 해서 ‘꿀벅지’ (?)에 ‘초코릿복근’을 만들어 내년 봄 ‘서울동아마라톤’에서 폼 나게 달릴 생각으로 벌써 가슴 설레고 있습니다.



잊었지만 잃지는 않았던...!

울진에서 전주는 참으로 먼 길이다. 그래도 어린애 마음처럼 들떠서 행여 포항까지 늦게 도착하면 혼자 떼어 놓고 떠날까봐 부지런히 서둘렀다. 12시를 정점으로 할머니들과 할아버지들의 야속한 눈초리를 피해 시장으로 난 길목을 조심해서 살폈다. 얼굴은 아예 땅만 바라보며 야반도주하는 신용불량자처럼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정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알 수 없는 힘에 끌려 도망치듯 진료실을 빠져나가는 희열이 또 묘한 쾌감이 있다. 몇몇 낮익은 얼굴들과 마주치면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했다. 기실 이미 진료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지극히 합리적인 원인 때문이리라.

토요일 오후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특이 장날 시가지 도로만큼 질편하고 번거로운 데가 없다. 시가지를 벗어나면서 아주 느긋해지고 마음이 편해진다. 역새풀과 들국화는 이미 가을이 깊어가는 징조임에 틀림없다. 감나무가 탐스럽고 오곡이 영글어가는 들녘에서 환청으로 들어보는 풍년가에 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린다. 한가위가 엇그제 이견만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했던 명절은 아쉽기만 하다. 끼리들만의 잔치라고는 하지만 처음 참석하는 마음이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오히려 실수나 하지 말고 망가지거나 구겨지지 말아야 한다는 소심한 생각뿐이다.

“달이 희고 눈이 희고 천지가 하얗다” (月白 雪白 天地白)

“산이 깊으니 물이 깊고 나그네의 수심이 깊다” (山深 水深 客愁深)

의생은 모작을 해본다.

“산이 붉고 들이 붉으니 천지가 붉다” (山紅 野紅 天地紅)

“가을이 깊어가니 정이 깊고 의료인의 수심이 깊다” (秋深 情深 醫愁深)



이 종 규
연세га정의학과의원(울진)

완주 벌에 땅거미가 깔릴 때쯤 반가운 면면들과 수인사가 이루어지니 모처럼만에 어두웠던 얼굴이 환해진다. 환영만찬이 익어가니 노래 소리가 흥겹다. 장벽이 허물어지고 훈훈한 정이 오고가니 급기야 축배는 물론이고 건배와 여흥이 즐겁기만 하다.

무슨 행사에서든 클라이맥스는 아주 우연치 않게 만들어 지는 법이다. 공연히 의도된 각본은 때로 어긋나기만해서 어눌한 경우가 많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 흘러간 옛 노래에 감정을 넣어 모두의 목소리를 한꺼번에 끄집어냈다. 참으로 잘 어우러지지 않았던가! 급기야는 악을 쓰다시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학창시절의 근성이 유감없이 표출되니 그 모습에 모두가 길길이 뛰

며 나이를 잊었다. 막걸리가 그렇고 젓가락 장단이 그동안 잊고 지내던 삼십년의 향기를 모락모락 풀어냈다. 결국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 무서운 폭발력으로 실내의 분위기를 압도하지 않았던가! 화염방사기의 열기보다 더 뜨거웠다. 젓가락 장단은 잊어버린 삼십년을 표출하고도 남았다. 요란한 장단에 막걸리 주전자가 덩달아 어깨를 쉴룩인다.

막걸리에 취해본 게 언제였던가? 삼십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언제 이렇듯 울분을 토해본 적이 있었던가! 언제 이렇게 포효하고 정열을 태우려고 해 본적이 있었던가! 유정천리가 그랬고 박달재의 구성진 가락이 지난 삼십년을 대표했다면 통기타의 낭만은 캠퍼스의 젊음을 대신하지 않았던가! 시끌벅적한 주막에서 세대 간의 즐거움이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모두를 어우르지 않았던가! 잊기는 했어도 결코 잃지 않은 삼십 년이다.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던 우리들의 시대가 재현되는데 어느 누가 감히 그 시간 속 여행을 마다 하리요!

막걸리가 넘치니
안주가 끊임없다.
주객이 넘치니
취기가 넘쳐난다.
수심 깊던 의심(醫心)은
술에 취하고 정에 취했다.
추야장 긴긴밤은
짧기만 한데.

구들장을 짚어지던 시절이 또 얼마 만이던가! 따끈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하니 화롯불이 그립고 군밤이 생각난다. 누가 나그네에게 설움이 있다고 했던가! 폭신한 요를 깔고 눈을 감으니 마누라도 필요 없고 죽 부인도 소용없다. 객 수심이 웬 말인고!

선선한 소슬바람에 아침밥상을 받으니 송늬가 냉큼 눈에 띈다. 맛깔스런 조개젓이 입맛을 돋우며 양기를 슬쩍 건드린다. 아하! 바로 이래서 가을인가보다. “내소사”와 “적벽강”을 둘러보니 “백낙천”과 “소동파”의 흔적이 새롭다. 오른쪽이 바다인가 왼쪽이 호수인가.

버스에서 졸다가 어렴풋이 눈을 뜨니 도무지 오리엔테이션이 서지를 않는다. 문득 “두보”가 생각나서 또 모작을 해본다.

푸른 바다의
흰 구름이 더 희고
고운 잔디 속에서
역새풀은 더 곱구나.
하얀 공이 햇살을 가르니
의안(醫顏)은 반시마냥 영근다.

어디에나 석별은 아쉽다. 회자정리가 아니던가! 아쉬움은 또 그리움이다.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던가! 첫사랑만큼이나 가슴 설레던 기다림이 아직도 있었던가! 잊었던 삼십년을 다시 찾은 오늘, 어떻게 이 감동을 모두 표현 하리요! 차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결코 차갑지가 않다. 차라리 절필하고 바람을 안아본다. 뜨뜻미지근한 바람 속에 인정이 있고 가을은 깊어만 간다. 째깍한 밤하늘에 별빛이 어른 거린다. 스물 석 점이 넘어서니 낮익은 간판이 보인다. 하마.....집이던가!

「편집자 주」
경북·전북의사회 친선행사 식후행사로 전주시에 내 막걸리집에서의 여흥과 익일 관광에 대한 첫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KTX 시간표 / 서울 ⇄ 동대구 ⇄ 부산

■ 경부선 하행

열차번호	서울	동대구	부산	비고
101	5:30	7:18	8:27	
601	5:50	7:38(김천)		
103	6:00	7:43	8:51	
271	6:10	7:53	8:57	월
351	6:10	7:52		토일
105	6:25	8:10	9:13	
107	7:00	8:43	9:48	
301	7:10	8:57		
109	7:30	9:16	10:22	
111	7:45	9:28	10:33	
251	7:55	9:35	10:43	토일
353	8:10	9:52		금토일
113	8:20	9:57	11:00	
303	8:30	10:14		
253	8:40	10:28	11:33	금토일
603	8:50	10:38(김천)		
115	9:00	10:42	11:50	
355	9:20	11:07		토일
117	9:40	11:20	12:23	
119	9:50	11:38	12:47	
357	10:00	11:47		토일
307	10:10	11:52		
121	10:20	12:08	13:12	
123	10:40	12:20	13:28	
125	10:50	12:33	13:36	
359	11:05	12:46		금토일
127	11:15	13:03	14:08	
255	11:25	13:14	14:20	금토일
129	11:40	13:21	14:24	
305	11:50	13:34		
131	12:00	13:48	14:56	
133	13:00	14:48	15:57	
309	13:15	15:02		
135	13:30	15:10	16:13	
361	13:40	15:22		금토일
137	13:50	15:38	16:44	
139	14:15	15:55	17:01	
257	14:20	16:08	17:14	토일
311	14:30	16:12		
141	14:40	16:28	17:34	
363	14:50	16:37		토일
143	15:10	16:50	17:56	
605	15:20	17:07(김천)		
145	15:30	17:18	18:24	
259	15:40	17:28	18:37	금토일
365	15:50	17:37		금토일
147	16:00	17:48	18:53	
149	16:30	18:10	19:16	
151	16:40	18:28	19:31	
367	17:00	18:42		금토일
313	17:10	18:49		
261	17:20	19:00	20:06	금토일
153	17:30	19:10	20:18	
315	17:40	19:27		
155	18:00	19:40	20:43	
173	18:05	19:45	20:51	월화수목금
157	18:20	20:08	21:14	
317	18:30	20:17		
331	18:50			월화수목토일
275	18:50	20:38	21:43	금
159	19:00	20:48	21:57	
369	19:10	20:54		금토일
161	19:30	21:18	22:21	
265	19:50	21:33	22:41	금토일
607	20:00	21:52(김천)		
163	20:10	21:58	23:07	
165	20:45	22:33	23:36	
267	21:00	22:40	23:43	금토일
167	21:10	22:50	23:53	
169	21:20	23:00	00:08	
319	21:40	23:27		
269	21:50	23:33	00:37	금토일
171	22:00	23:48	00:57	
273	22:15	23:58	01:04	금일
333	22:30			

■ 경부선 상행

열차번호	부산	동대구	서울	비고
332			7:18	
250	4:30	5:37	7:26	월
252	4:40	5:48	7:34	월
334			7:43	
102	5:00	6:08	7:54	
602		6:26(김천)	8:14	
104	5:30	6:38	8:22	
302		6:45	8:30	
106	6:00	7:08	8:57	
108	6:15	7:22	9:05	
254	6:25	7:30	9:09	금토일
110	6:30	7:41	9:27	
112	7:00	8:05	9:51	
274	7:15	8:20	9:59	토
352		8:30	10:17	토일
114	7:30	8:41	10:27	
116	8:00	9:05	10:40	
304		9:25	11:12	
604		9:31(김천)	11:15	
118	8:30	9:41	11:22	
120	9:00	10:05	11:51	
122	9:30	10:41	12:24	
306		11:00	12:41	
124	10:00	11:08	12:54	
354		11:15	12:57	금토일
126	10:20	11:25	13:04	
356		11:40	13:27	토일
128	10:40	11:51	13:37	
130	11:00	12:05	13:56	
308		12:10	13:57	
358		12:20	14:05	토일
132	11:20	12:31	14:14	
256	11:40	12:51	14:37	토일
310		13:00	14:41	
134	12:00	13:08	14:54	
136	13:00	14:11	15:57	
312		14:20	16:07	
138	13:25	14:30	16:09	
360		14:40	16:27	금토일
258	13:45	14:56	16:37	금토일
140	14:00	15:05	16:51	
142	14:15	15:26	17:07	
144	14:30	15:38	17:19	
260	14:40	15:51	17:32	금토일
362		15:55	17:42	금토일
146	15:00	16:05	17:51	
606		16:16(김천)	18:05	
148	15:30	16:41	18:27	
150	15:50	16:55	18:34	
314		17:10	18:57	
364		17:20	19:07	토일
152	16:30	17:41	19:22	
154	16:50	17:55	19:41	
366		18:10	19:55	금토일
156	17:20	18:31	20:17	
158	17:45	18:50	20:29	
262	18:00	19:05	20:49	토일
608		19:06(김천)	20:54	
160	18:10	19:21	21:02	
368		19:25	21:12	금토일
316		19:40	21:32	
162	18:45	19:53	21:36	
318		20:05	21:46	
164	19:05	20:13	21:59	
264	19:20	20:25	22:08	금토일
166	19:30	20:38	22:24	
320		20:55	22:40	
168	20:00	21:11	23:00	
370		21:25	23:12	금토일
170	20:40	21:45	23:31	
266	20:50	22:01	23:42	금토일
268	21:05	22:10	23:57	금토일
172	21:25	22:36	00:22	
270	21:40	22:48	00:29	금
174	22:05	23:13	00:52	

노르믹스 정



Rifaximin 200mg

비흡수성 초강력 항생제
모든 소화기 감염증 일차 선택약

DIVERTICULAR DISEASE OF THE COLON
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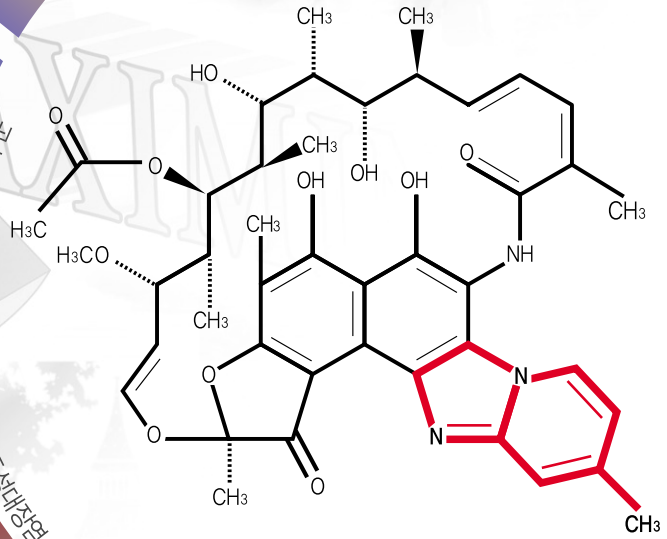
ACUTE GASTROINTESTINAL INFECTIONS
급성 위장관 감염

IRRITABLE BOWEL SYNDROME
과민성대장증후군

INFLAMMATORY BOWEL DISEASE
염증성대장염

HEPATIC ENCEPHALOPATHY
간성혼수

PRE/POST SURGERY INFECTION
장수술감염예방



- 흡수 안 되므로 **전신 부작용 없습니다.**
- 흡수 안 되므로 항균력이 장을 따라 내려가면서 **8,000 µg/g**으로 증강되어 **모든 병균을 완전하게 살균 제거** 하므로 내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장내 세균총**은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the Non-Absorbable Antibiotic for Intestinal Disease

제조원
ALFA WASSERMANN

www.hanall.co.kr
고객지원팀 : 1644-5515

판매원
HANALL
pharmaceutical



BORYUNG
보령제약



H.pylori Eradication 적응증을 가진 최초의 새로운 H₂RA 스토가

- *Helicobacter. pylori* Eradication
- Potent and Long Lasting Antisecretory Activity
- Cost - Effectiveness
- Rapid Onset
- Gastroprotective Action

STOGAR Tab. (Lafutidine 10mg)

【원료의품 및 그 분량】 1정 중 Lafutidine... 10mg **【성상】**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제 **【효능·효과】** 1.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병변의 개선 3. *Helicobacter pylori* 에 감염된 소화기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4. 마취전 투약 **【용법·용량】** 1. 위궤양의 단기치료 : 통상 라푸티딘으로 1회 10mg을 1일 2회 오전 및 취침전에 경구 투여합니다. 최대 8주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 8주 이내에 치유되거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 통상 라푸티딘으로 1회 10mg을 1일 2회 오전 및 취침전에 경구 투여합니다. 최대 6주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 6주 이내에 치유되거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의 개선 : 통상 라푸티딘으로 1일 1회 10mg을 취침전 경구 투여합니다. 최대 2주간 투여한 임상시험 결과 대부분 2주 이내에 치유되거나 간혹 환자에 따라 치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Helicobacter pylori* 에 감염된 소화기 궤양 환자에 대한 항생제 병용요법 : 라푸티딘 20mg, 클레리스로마이신 500mg, 아목시실린 1000mg을 1일 2회 7일간 또는 14일간 투여합니다. 5. 마취전투약 : 통상 라푸티딘으로서 1회 10mg을 2회(수술전날 취침전, 수술당일 마취투여 2시간전) 경구 투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g

글로벌 기업 최초 R&D 투자 3000억원,
국내 의약 발전을 위한 지치지 않는 열정,
한국을 신약개발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꿈과 땀,
소외된 사람은 물론 희귀한 질병까지 돌보는 폭넓은 연구활동.
이 알약 하나에 한국화이자제약의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한국화이자제약의 끊임없는 노력,
세상 그 무엇보다 빛나는 가치입니다.



한국화이자제약